

## ▶ 내신 기출 국어 비상 박안수-하편 ◀

### 5.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길

- (2) 조선의 얼, 광화문 (23문제)----- 1쪽  
(3)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15문제)----- 16쪽

### 6. 함께 만드는 세상

- (1) 두근두근 내 인생 (59문제)----- 27쪽  
(2)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50문제)----- 71쪽

### 7.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

- (1) 국어의 문법 요소 (64문제)----- 94쪽  
(2) 국어의 어제와 오늘 (66문제)----- 115쪽  
(3)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 (21문제)----- 134쪽

### 8. 한국 문학의 빛깔

- (1) 시조 두 수 (52문제)----- 147쪽  
(2) 속미인곡 / 진달래꽃 (56문제)----- 167쪽  
(3) 허생전 (53문제)----- 193쪽

### 9. 문제를 해결하는 힘

- (1)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31문제)----- 231쪽  
(2)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한다. (26문제)-- 251쪽

◆빠른 전체 정답 -----268쪽

◆해설 -----271쪽

**교재 버전: 2021.08.12**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임이 오마” 문법 정리

## 가 동지(冬至) 수도 기나긴 밤을 작가 소개 영상 소단원 정리 PPT

- 초창** 동지(冬至) 수도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 동짓달 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냄  
임이 부재하는 부정적 시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함
- 중창**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 베어 낸 밤을 넣어 둠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 대조
- 종창**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임이 오시면 밤을 펼쳐 길게 만들고 싶은  
정을 맺은 임      임이 오신 날 밤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음성 상징어      - 황진이 / 정병욱 편저, 『시조 문학 사전』

## 나 님이 오마 후거늘 소단원 정리 PPT

- ▶ 평시조보다 긴 초창과 중창 -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 변형
- 초창** 님이 오마 후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      「.」 화자의 들뜬 마음이 반영된 행동  
 지방(地方) 우희 치드라 안자 이수(以手)로 가액(加額) 하고 오논가 가논가 건  
입이 오는 곳을 계속 바라봄  
 년 산(山) 바라보니 거머뿔들 서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화자가 입을 뜬 것으로 착각함 ▶ 임이 온다고 하여 저녁을 먹고 입을 기다림
- 중창**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곱비님비 님비곱비 천방지방 지방  
의태어  
 천방 즈 되 므른 되 곱희지 말고 위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엿말 후려 하고 것  
의성어      인과의 회포를 푸는 말  
 눈을 흘깃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날 곱가 벽긴 주추리 삼대 솔드리  
지단체      곱가      '나'가 임으로 착각한 대상  
 도 날 소겨라 ▶ 입을 만나러 허겁지겁 달려갔으나 자신의 착각임을 알게 됨  
중창 첫 음보는 3음절 - 평시조의 형식적 특징 유지
- 종창** 모쳐라 밤일식만정 흥혀 낮이런들 늘 우일 번 후괘라 ▶ 자신의 행동을 겸연쩍어함  
실망감보다는 멋쩍음을 드러냄 - 사설시조 특유의 낙천성과 해학성  
- 작자 미상 / 정병욱 편저, 『시조 문학 사전』

	가 동지(冬至) 수도 기나긴 밤을	나 님이 오마 후거늘
<b>갈래</b>	시조, 평시조	시조, 사설시조
<b>성격</b>	서정적, 감각적	해학적, 과장적
<b>제제</b>	연모(戀慕)의 정.	임이 온다는 소식.
<b>주제</b>	임을 기다리는 절실한 그리움	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b>특징</b>	•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함. • ( <b>음성 상징어</b> )를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잘 드러냄.	•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행동을 ( <b>과장</b> )하여 묘사함. • ( <b>해학적</b> )이고 낙천적인 사고관이 잘 나타난다.

작가 소개

기 동지(冬至) **사물** 지나긴 밤을

황진이(?~?) · 조선 시대의 기생, 기명(妓名)은 '명월(明月)'이다. 용모가 아름답고 가창이 뛰어났으며, 서사(書史)에도 정통하고 시가에도 능했다. 한시와 시조 등 여러 작품이 전한다.

제재 구조도

기 동지(冬至) **사물** 지나긴 밤을

- 초장 동짓달 긴 밤의 한가운대를 베어 냄.
- 중장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 베어 낸 밤을 넣어 둠.
- 종장 정든 임이 오신 날 밤을 펼쳐 내어 밤을 길게 만들고 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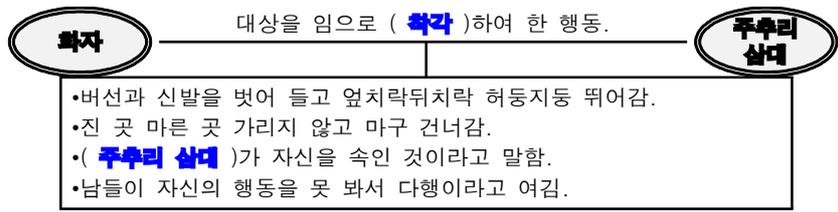
나 님이 오마 **후거놀**

- 초장 임이 온다고 하여 저녁밥을 일찍 먹고 임을 기다림.
- 중장 임을 만나러 허겁지겁 달려갔으나 자신의 착각임을 알게 됨.
- 종장 자신의 행동을 겸연쩍어함.

1.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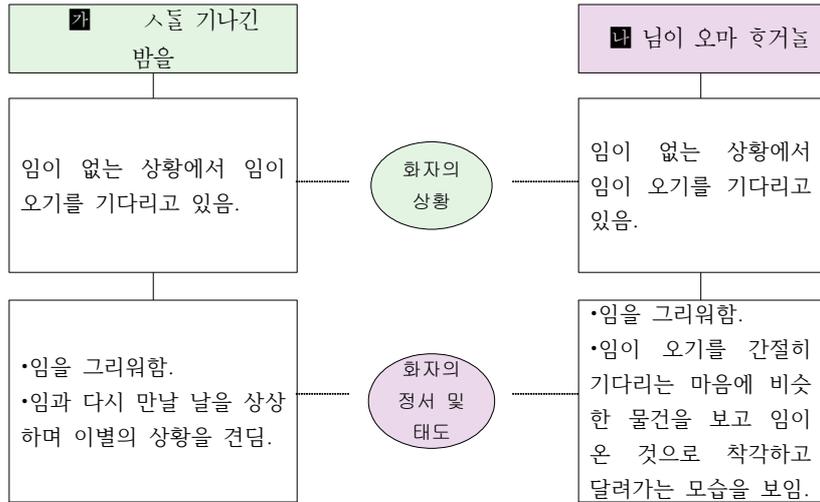


2.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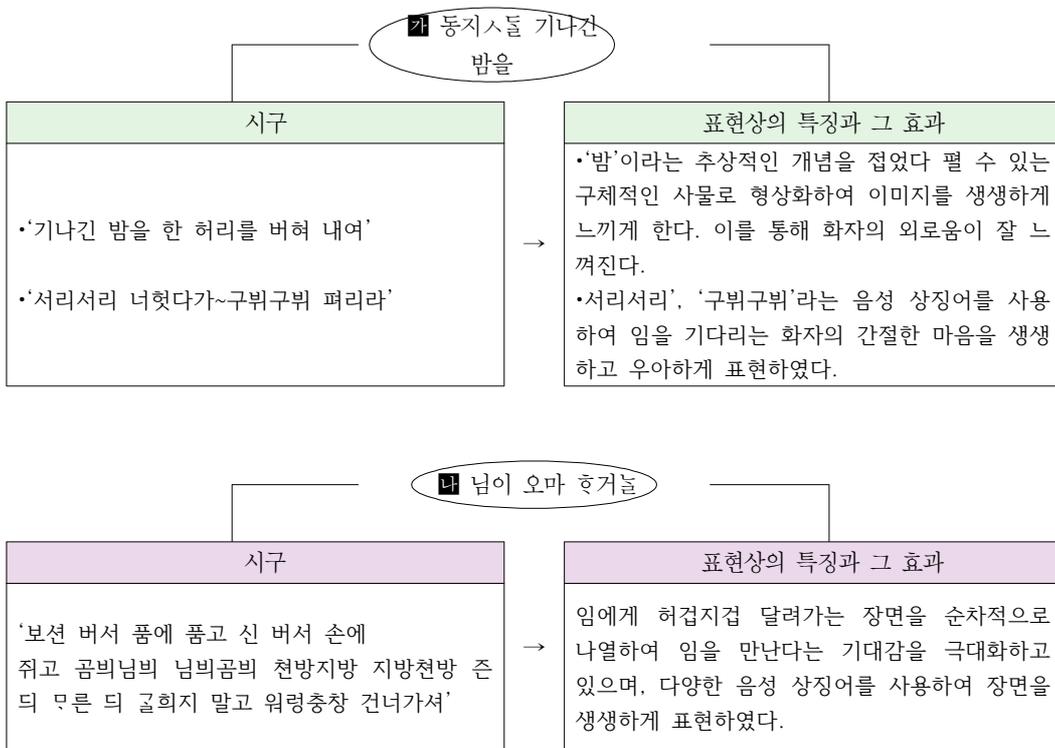


# 근대인의 특색 표현 방법

## 1 두 시조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파악해 보자.



## 2 두 시조의 시구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파악해 보자.



**1 다음 글을 참고하여 시조의 형식적·내용적 특성을 알아보자.**

고려 말기에 나타나 조선 시대에 전성기를 이룬 서정 문학이다. 시조의 기본적인 형태는 평시조로, 평시조는 3장(초장, 중장, 종장), 6구, 4음보를 기본형으로 한다. 조선 후기로 가면 평시조의 정형적 형식에서 벗어난 사설시조가 나타난다.

시조는 주로 사대부의 정서와 이념을 풀어낸 것으로, 자연 친화적 태도를 노래하거나 충효(忠孝) 등의 유교적 가치관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사대부의 풍류에 참여하는 기녀도 시조를 창작하였는데, 남녀의 정을 섬세하고 우아하게 표현하였다. 사설시조는 작자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많으며, 주로 세태를 풍자하거나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노래하였다.

**(1) 형식적 측면에서 두 시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 사들 기나긴 밤을	㉡ 님이 오마 흥거늘
공통점	3 (초장 - 중장 - 종장)으로 구성되고,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임.	
차이점	· 평시조. 시조의 정형적 형식을 지킴.	· 사설시조. 시조의 정형적 형식에서 벗어남. - 어느 한 장이 두 구 이상, 특히 중장이 길어짐.

**(2) 다음은 조선 풍기의 문신인 송순이 지은 평시조이다. 작자를 고려할 때, 앞의 두 시조와 내용적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보자.**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흥 간 들 흥 간에 청풍(淸風) 흥 간 맞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뉘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정병욱 편저, 『시조 문학 사전』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앞의 두 시조와 달리, 이 시조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조를 지은 송순은 사대부로, 이 시조에는 사대부의 풍류와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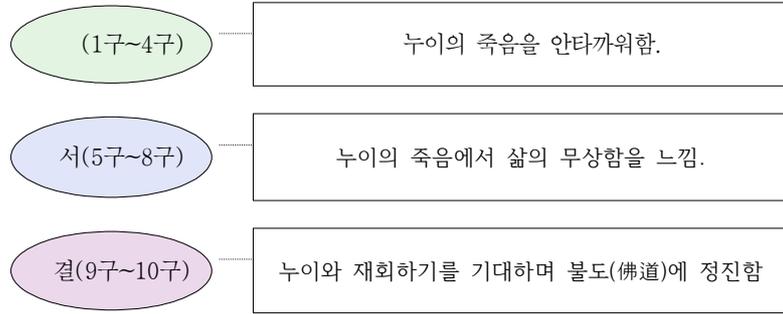
**2 다음은 향가 『제망매가(衆亡寐歌)』이다. 이를 감상하고 형식적 측면에 나타나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알아보자.**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일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미타찰(彌陀刹)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서방 정도.

- 월명사/김완진 옮김, 『향가 해독법 연구』

**(1) 『제망매가』의 구성과 내용을 파악해 보자.**



**(2) 「제망매가」와 「님이 오마 흥거늘」의 형식적 특징을 비교해 보자.**

	제망매가	님이 오마 흥거늘
구성	'기-서-결'의 3단 구성을 취함.	'초장 - 중장 - 종장'의 3단 구성을 취함
시상의 종결 방식	결사를 감탄사 '아아'로 시작하여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표현하고 시상을 전환함	종장을 감탄형 '모쳐라'로 시작하여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표현하고 시상을 전환함

**주요 문인**

1)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 자를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인 밤을 베어 낸다고 표현함으로써 시간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임과 함께할 수 없는 기나긴 동짓달 밤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2)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뽀구뽀 퍼리라

→ 잘라 둔 시간을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에 넣어 보관해 두었다가, 임이 오신 밤에 펼쳐서 임과 함께 보내는 밤을 더 길게 하고 싶다는 뜻이다.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1)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地方) 우희 치드라 안자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논가 가논가 건넌 산(山) 바라보니

→ 임이 오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들뜬 모습을 나타낸 부분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행동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공비(公比) 님비(比)공비(公比) 천방(天方) 지방(地方) 천방(天方) 존 디 무른 디 곱히지 말고 워령(望)창 건 너가서

→ 그리운 임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과장된 행동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통해 장면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5) 모쳐라 밤일식만정(萬正) 흥혀(興) 낮이런들(來) 늬(你) 우일(偶) 번(分) 후괘(後)라

→ 화자는 자신이 착각을 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기보다는 남을 의식하며 겸연쩍어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은 웃음을 유발하며 사설시조 특유의 해학성을 드러낸다.



**자양고등학교 (서울)**

4.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 ② 착각이 빚어낸 행동들이 열거되고 있다.
- ③ 중장과 종장은 평시조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 ④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은 작년에 추수하고 세워둔 삼대이다.
- ⑤ 임이 오는 방향을 계속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동작이 잘 나타나 있다.

**자양고등학교 (서울)**

5.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는 독특한 발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③ 자연물을 의인화함으로써 자신이 꿈꾸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욕심없이 살고자 하는 청빈한 삶의 태도가 솔직하고 현실성 있게 드러나 있다.
- ⑤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겠다며 자연에의 동화를 꿈꾸는 안빈낙도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자양고등학교 (서울)**

6. 다음 글을 참고하여 시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조는 고려 말기에 나타나 조선 시대에 전성기를 이룬 서정 문학이다. 시조의 기본적인 형태는 평시조로, 평시조는 3장(초장, 중장, 종장), 6구, 4음보를 기본형으로 한다. 조선 후기로 가면 평시조의 정형적 형식에서 벗어난 사설시조가 나타난다.

시조는 주로 사대부의 정서와 이별을 풀어낸 것으로, 자연 친화적 태도를 노래하거나 충효(忠孝) 등의 유교적

가치관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사대부의 풍류에 참여하는 기녀도 시조를 창작하였는데, 남녀의 정을 섬세하고 우아하게 표현하였다. 사설시조는 작자를 알 수 없는 작품이 많으며, 주로 세태를 풍자하거나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노래하였다.

- ① 주로 3음절이나 4음절이 하나의 음보를 이룬다.
- ② 시조는 대체로 네 마디로 쉬어 가면서 낭송하게 된다.
- ③ 고정 음수율을 지키는 부분은 주로 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사대부들이 창작한 시조의 형식적 특성은 기녀들과는 매우 다른 측면이 있다.
- ⑤ 사설시조는 평시조보다 어느 한 장이 두 구 이상, 특히 중장이 길어진 시조이다.

**자양고등학교 (서울)**

7.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삶이나 죽음과는 무관한 저승의 공간
- ② ㉡ : 죽은 누이를 가리킨다.
- ③ ㉢ : 갑작스럽게 찾아온 누이의 이른 죽음
- ④ ㉣ : 삶의 무상감에서 비롯되는 탄식
- ⑤ ㉤ :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

**경우고등학교 (경북)**

8. (나)와 (라) 작품의 시상의 종결방식에 대해 서술하시오.

# “속미인곡 / 진달래꽃” 문역 명칭

**사사** 네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임금이 있는 한양의 궁궐

현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니별(離別)**하고

'여인 2'가 임과 이별함 → 관직에서 물러남

히 다 더 저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논고 ▶ '여인 1'의 질문 - '여인 2'가 백옥경을 떠난 이유

쓸쓸한 상황 강조 - 애상적 분위기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저동이 님 괴암죽 혼가마는

엇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임에 대한 '여인 2'의 순수한 사랑과 믿음

이러야 **교티야 어저러이** 하듯션디

'여인 2'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

반기시논 **늦비치** 네와 엇디 다투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뵈기 빠혀시니

이별에 대해 자책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조물주의 탓 - 문명론적 태도

설워 **플터**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사사** 임과 헤어지 이유에 대한 '여인 1'의 질문과 '여인 2'의 답변

**본사** **글란** **싱각** **마오** **민친** **일이** **이셔**이다

'여인 1'이 '여인 2'를 위로함 / '여인 2'의 말 -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 **물** 기쁜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츄일동턴(秋日冬天)은 뒤라셔 뵈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뵈 네와 기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좁은** 엇디 자시논고

님 다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임 계신 곳=임금 계신 곳=한양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가

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내 **모음** 둘 더 **업다** **어드러**로 **가갓** 말고

'여인 2'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간

잡거니 **밀**거니 **눅**은 **뵈히** 올라가니

**주름**은 **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 '여인 2'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 당시 조정을 어지럽히던 간신을 상징함

**산천(山川)**이 **어둑**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당시의 부정적인 시대 상황 / 임금을 상징함

**지척(咫尺)**을 모부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기의 **가** **비길**히나 **보라** 하니

**봄**이야 **봄**절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더** **가고** **빈** **비**만 **걸**렸논고

객관적 상황물 - '여인 2'의 외로움 부각

**강턴(江天)**의 **혼자** 서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 참고 자료

'미친 일이 이셔이다'에 대한 다양한 해석

우선, '여인 2' 자신이 맞힌 일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친 일'은 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는 임이 맞힌 일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임이 맞힌 일이 있다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여인 2'의 행동 때문에 임의 가슴에 맞힌 일이 있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과 '여인 2'가 멀어지도록 제3자가 임의 가슴에 맞힌 일을 만든 것이다. 후자의 해석이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게 하는 명분이 되므로 더 설득력이 있다.

▶ '여인 2'의 답변

- 자신 때문에 임과 이별하였다고 자탄함

▶ 자책하는 '여인 2'를 위로하는 '여인 1'

님 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모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논고

객관적 상관물 - '여인 2'의 외로움 부각

오르며 누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낮 동안 '여인 2'가 했던 행동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뜻증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꿈의 님을 보니

임과 '여인 2'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옥(玉) 7툰 얼구리/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임과 '여인 2'가 함께 있었을 때 임과 '여인 2'가 헤어져 있을 때

마음의 머근 말숨 슬크장 슬자 하니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말

눈물이 바라나니 말숨인들 어이 흐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조차 메여 하니

오던뉘 계성(鷄聲)의 좁은 엇디 끼뉘던고

▶ '여인 2'의 하소연

본사 | '여인 1'의 원로와 '여인 2'의 임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결사**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여인 2'의 곁에는 그림자뿐 - 임의 부재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쉰이로다

'여인 2'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드러냄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서

'여인 2'의 분신 ① - 조극적 애정관(멀리서 임을 바라봄)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 '여인 2'의 소망

'여인 2'의 분신 ② - 적극적 애정관(오랫동안 내리며 임의 곁에 있을 수 있음)

각시님 돌이야 쿠니와 구즌비나 되쇼셔

▶ '여인 1'의 조언

**결사** 임을 따르고 싶은 소원을 밝히는 '여인 2'와 그에 대한 '여인 1'의 조언.

	㉠ 속미인곡	㉡ 진달래꽃
<b>갈래</b>	가사, 서정 가사, 양반 가사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b>성격</b>	서정적, 애상적	민요적, 애상적
<b>제지</b>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임과의 이별.
<b>주제</b>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이별의 정한(情恨).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전개 됨.</li> <li>• 우리말 표현의 아름다움을 잘 살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여성 화자의 애절한 심정을 노래함.</li> <li>• 민요조 율격과 ( <b>수미 상관</b> )식 구성이 나타남.</li> </ul>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별의 상황 가정 : 유사한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 형성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 이별의 상황 가정과 체념  
 체념적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향토적 분위기 형성

진달래꽃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 화자의 분신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 임에 대한 사랑과 축복  
 꽃을 뿌려 공덕을 기리는 산화공덕(散花功德)의 전통이 드러남

수미  
 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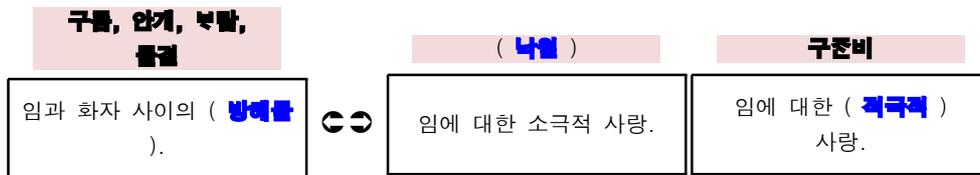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화자의 희생적 사랑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원망을 뛰어넘는 자기희생적 사랑  
 이별의 정한을 자기희생을 통한 승고한 사랑으로 승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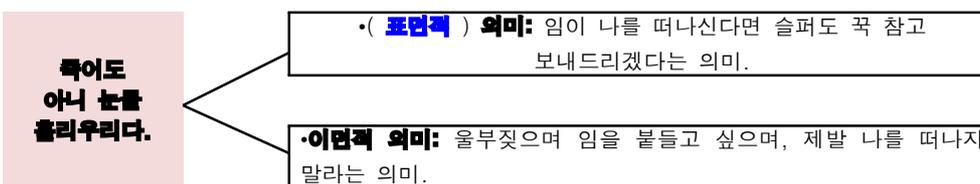
나 보기가 역겨워  
 'ᄃᆞᆫ' :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견디겠다는 '애아불비(哀而不悲)'의 정한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슬픔의 극복과 승화  
 정한의 극복 의지 강조(반어법, 도치법)  
 • 표면적 의미: 임이 나를 떠나신다면 슬퍼도 꼭 참고 우네드리겠다는 의미  
 • 이면적 의미: 임을 붙들고 싶으며,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는 의미

1. ㉠ 속미인곡: 소재의 상징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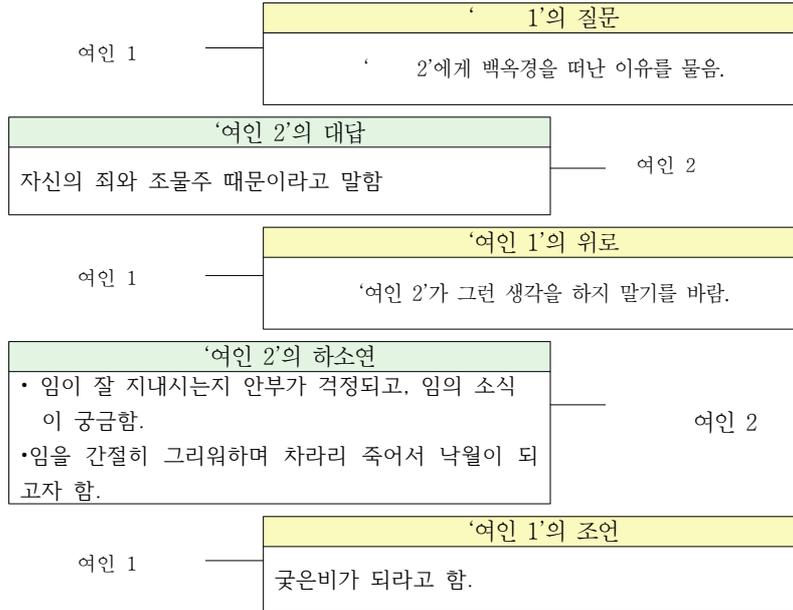
2. ㉡ 진달래꽃: 슬픔과 소망을 부각하는 반어적 표현



## 모티브인 **탁승** 활동 모델

### 1 ■ **속미인곡** 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1) **속미인곡** 이 두 여인의 대화로 전개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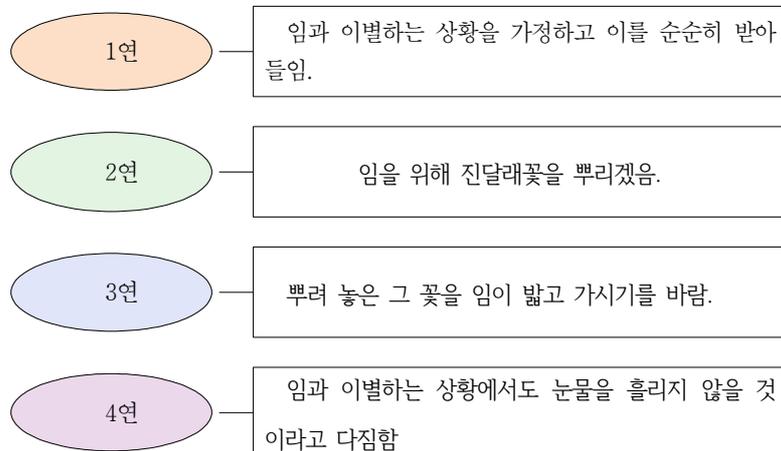
#### (2) **'낙월'**과 **'구준비'**가 함축하는 의미를 **말**해 보자.

\*낙월: '낙월'은 지는 달로, 임이 계신 곳을 멀리서 잠깐만 비출 수 있다. '낙월'은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여인 2'의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지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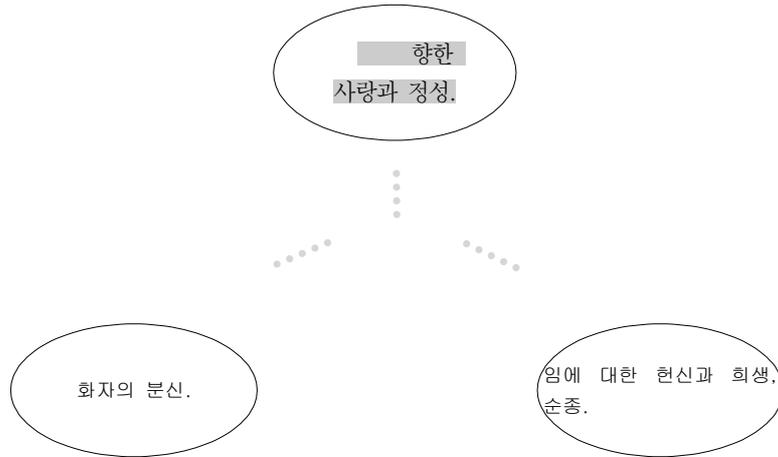
\*구준비: '곳은비'는 어두침침하게 오랫동안 내리는 비로, 임을 적실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임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 '낙월'보다 더 오래 임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낸 소재이며, '여인 2'의 슬 픈 눈물이라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어 그리운 마음을 전하기에 더 효과적이다.

### 2 ■ **진달래꽃** 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1)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각 연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2) 이 시에서 '진달래꽃'이 상징하는 의미를 파악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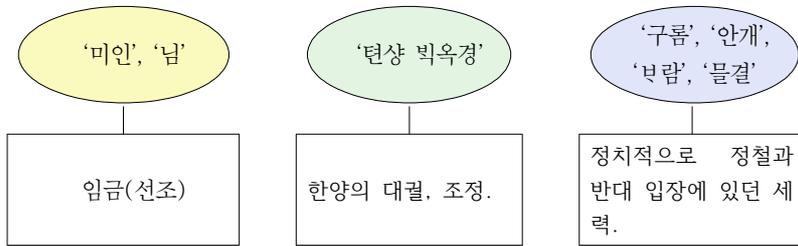


**1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두 작품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1)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속미인곡』의 창작 배경을 정리한 글이다. 이를 참고하여 주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술을 좋아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며, 봉당을 만들어 선비들을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았다. 당시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정철은 서인의 주요 인물로서 동인의 비판 대상이었다. 하지만 선조는 정철을 충성스러운 신하로 여기고, 그가 말을 너무 곧고 바르게 하기 때문에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정철을 두둔하였다. 그럼에도 결국 정철은 선조 18년인 1585년, 벼슬에서 물러나 전라남도 창평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 이때 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지었다.

사헌부(司憲府) 고려·조선 시대에, 정사(政事)를 논의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관리의 비행을 조사하여 그 책임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 사간원(司諫院) 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2) 다음 글을 참고하여 『진달래꽃』의 시구에 담긴 화자의 심정을 추측해 보자.**

화자는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으므로, 제시된 시구는 “임이 떠난다면 나는 슬퍼서 눈물을 펄펄 흘릴 것이다.”라는 심정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화자는 표면적으로는 눈물을 꼭 참고 떠나는 임을 보내 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임을 붙잡고 싶으며 임이 제발 자신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이러한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한과 슬픔을 더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恨)이란 서로 모순되는 두 층동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감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반어적인 혹은 역설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략)  
 상대방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긍정하면서도 부정하고, 이별하면서도 그것을 만남의 예비라고 생각하는 감정, 즉 모순의 복합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

- 김소월, 『김소월, 그 삶과 문학』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2 다음은 고려 가요 『가시리』이다. 『속미인곡』, 『진달래꽃』과 비교하여 감상에 보자.**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글가 대평성덕(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글가 대평성덕(大平盛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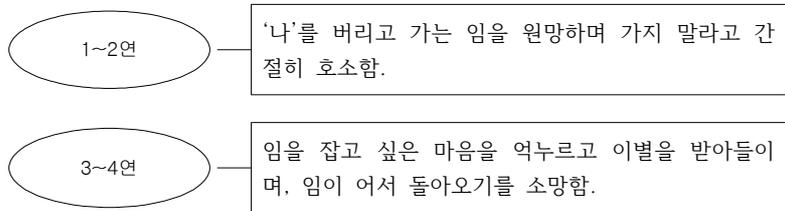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글가 대평성덕(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글가 대평성덕(大平盛代)

서운하면, 귀찮게 하면.  
 ■ **설은** 서러운.

- 작자 미상 / 박병채 옮김, 『고려 가요의 어석 연구』

**(1) 『가시리』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 보자.**



**(2) 화자의 측면에서 『가시리』, 『속미인곡』, 『진달래꽃』의 공통점을 말해 보자.**

세 작품 모두 여성을 화자로 내세우고 있다. 여성 화자를 통해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화자의 애절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적용**

**1 다음은 김만중이 정철의 가사를 평가한 글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속미인곡』의 가치를 아래에 보자.**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의 말을 배워서 표현하므로, 설령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간의 나무하는 아이나 물 길는 아낙네들이 소리 내어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비루하다 할지라도, 그 참과 거짓을 논한다면 정녕 학사 대부들의 이른바 시부(詩賦)와는 같은 자격에 두고 논할 수 없다.

하물며 이 세 편의 별곡(『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은 천기(天機)가 스스로 일어난 것을 담고 있되 속됨은 없으니,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참문장은 이 세 편뿐이다. 그런데 세 편을 가지고 다시 따져 본다면, 『속미인곡』의 수준이 가장 높다. 『관동별곡』과 『사미인곡』은 여전히 한자어를 빌려서 수식한 것이므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중략)** 시와 부(한문체에서, 글귀 끝에 운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 짓는 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김만중 / 심경호 옮김, 『서포만필(西浦漫筆)(하)』

『속미인곡』은 타고난 그대로의 기질과 진실한 감정을 한자어로 꾸미지 않고 우리말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구원 탐이**

[속미인곡]

- 1) 텃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하야 니별(離別)하고 /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 ‘여인 1’의 질문으로, 하늘 위 ‘백옥경’은 임금이 있는 한양의 궁궐을 의미하며, 백옥경과 이별하였다는 것은 ‘여인 2’가 임과 이별한 처지, 즉 관직에서 물러났음을 나타낸다. ‘해 다 저 저문 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여인 2’의 쓸쓸한 상황을 더욱 강조하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 2)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훈가마는 / 었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 자신의 모습이 불품없지만 임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에 자신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임에 대한 ‘여인 2’의 순수한 사랑과 믿음의 자세를 보여 준다.
- 3) 내 몸의 지은 죄 뵈?티 빠혀시니 /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툼이라 허물하라 / 설워 플터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 ‘여인 2’는 임과 이별한 이유를 자신의 죄와 조물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인 2’의 운명론적 인생관이 드러난다. 또한 신하로서 임금을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작가의 유학자적인 태도도 엿볼 수 있다.
- 4)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뵈섯논고 / 죽조반(粥早飯) 죠석(朝夕) 뵈 네와 궂티 세시논가 / 기나긴 밤의 잠은 었디 자시논고  
 → ‘여인 2’는 자신이 임을 모시던 때를 생각하며 여러 걱정거리들을 털어놓고 있다. ‘여인 2’의 이러한 임에 대한 염려는 임금에 대한 충정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5) 잡거니 밀거니 놓픈 뵈히 올라가니 / 구름은 꺾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 ‘구름’과 ‘안개’는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정치적으로 작가와 반대 입장에 있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6)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었디 보며 / 지척(咫尺)을 모러거든 천 리(千里)를 브라보라  
 → 임을 걱정하는 ‘여인 2’의 마음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월’은 해와 달로 임금을 상징하며, 산천이 어둡다는 것은 작가가 시대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7) 샴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논고  
 →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방황하는 ‘여인 2’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빈 배’는 ‘여인 2’의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객관적 상관물로 작용하고 있다

8) 정성(精誠)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 옥(玉) 7톤 열구리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 꿈속에서나마 임을 만났지만 임은 자신의 걱정대로 많이 변해 버렸다는 의미로, 임과의 재회를 더욱 간절히 바라는 '여인 2'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9)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 그림자만이 자신을 따르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꿈속에서 잠깐 임을 보고 헤어진 후의 '여인 2'가 느끼는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0) 각시님 돌이아 크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 '여인 1'은 멀리서 임을 바라만 보는 달보다는 오랫동안 내리며 임의 옷을 적실 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 굶은비가 되라며 '여인 2'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진달래꽃]

1)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 화자는 임과의 이별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체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 임과의 이별을 견디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임이 가시는 길에 사랑과 정성의 꽃을 뿌려 가시는 길을 축복하겠다는 의미이다. 불교에서 부처에게 꽃을 뿌려 공덕을 기리는 '산화공덕(散花功德)' 모티프와 연결될 수 있다.

3) 놓인 그 꽃을 /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화자의 분신으로 화자 대신 임에게 밟히는 '진달래꽃'을 통해 화자의 헌신적 사랑과 희생정신이 나타난다. 자기희생을 통해 이별의 정한을 승고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있다.

4)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는 '애이불비(哀而不悲)'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방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 가는 데 각시 본 듯도 험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하야 니별(離別)하고  
 히 다 데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험가마논  
 었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험뜨넌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뵈기 뵈혀하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ㄱ튼 얼굴이 편히실 적 몇 날일고  
 ㉡춘하고열(春寒苦熱)은 었디하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뵈라셔 뵈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죠석(朝夕) 뵈 네와 ㄱ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었디 자시논고  
 ㉢뵈 님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라  
 내 ㅁ옴 둘 디 었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높픈 뵈히 올라가니  
 구름은 ㄱ니와 안개는 ㅁ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었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ㄱ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하니  
 부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샴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논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논 히를 구버보니  
 님 님히 쇼식(消息)이 더욱 아득험더이고  
 모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뵈 녀진(力盡)하야 꾀음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쉼의 님을 보니  
 옥(玉) ㄱ튼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ㅁ옴의 머근 말슴 ㉥슬ㄱ장 숲샤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하며  
 정(情)을 못다 하야 목이초자 메여하니  
 오던뵈 계성(鷄聲)의 잠은 었디 췌뵈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ㄱ니와 ㉧구존비나 되쇼셔  
 - 정 철, 「속미인곡」

**자양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대화 형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 ③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심정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여성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자양고등학교 (서울)**

2. ㉠~㉤의 의미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 봄의 꽃샘추위와 따뜻한 날씨
- ② ㉡ - 임 계신 곳
- ③ ㉢ - 아주 가까운 거리
- ④ ㉣ - 잠깐 동안
- ⑤ ㉤ - 실컷

**자양고등학교 (서울)**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간절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 ② ㉦을 통해 임에게 다가갈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을 소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 ③ ㉧은 화자가 가진 임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보다 더 가까이 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과 ㉧은 각각의 여인들이 사모하는 임에 대한 정(情)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자양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의 화자와 가장 유사한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 ① 이화우(梨花雨) 흠날릴제 울며 잡고 이별훈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 계량
- ②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홀 부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슴도 우음도 아녀도 못내 도하하노라.  
- 윤선도, 만흥
- ③ 눈 마주 휘여진 대를 뉘라셔 굽다턴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세한 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원천석
- ④ 청산(靑山)은 옛데하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난 옛데하야 주야(晝夜)에 굶디 아니노고  
우리도 그치치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 이항
- ⑤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츠노매라  
냇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싯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월산대군

**경우고등학교 (경북)**

5.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땀땀까.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 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① 윗글의 중심화자는 <보기>의 '형님'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 ② 윗글과 <보기>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의 중심 화자는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두 명의 화자를 설정하여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⑤ 윗글과 <보기>는 대구법과 일정한 음보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경우고등학교 (경북)**

6. 다음은 윗글에 대한 비평의 일부이다. 이를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화자와 임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 ㉡임과의 거리를 좁혀 보려는 화자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애 요소로 인해 실제로 그 거리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데에 이 작품의 ㉣비장성이 있다. 거리를 좁혀 보려는 허망한 노력을 계속하던 화자는 마침내 이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비극적 초월을 통해 이를 극복해 보려 한다. 임을 향한 화자의 노력과 사념은 작품이 진행되면서 점차 강화되며, 이와 동시에 ㉤화자의 실의와 고뇌 역시 점점 깊어진다.

- ① '백옥경(白玉京)임'을 어찌하여 이별(離別)하고'를 통해 화자와 임은 이별하였고, 애타게 임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을 통해 ㉡를 알 수 있겠군.
- ② ㉢에 해당하는 내용은 화자가 '높은 산'과 '물가'를 찾아다니며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임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임의 소식을 간절히 알고자 하나 ㉣'구름과 일월', '바람과 물결'로 인해 화자의 뜻이 좌절되면서 쓸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군.
- ④ '모침(茅簷) 찬 자리'에서 임에 대한 꿈을 꾸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며 동시에 임과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드러내므로 ㉤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군.
- ⑤ '차라리 식여디여'라는 구절은 ㉤를 잘 보여 주고 있군. 죽기 전에는 임과의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오는 좌절감을 표현한 거야.

**경우고등학교 (경북)**

7. (1)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시가 전개방식과 (2)㉡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작품에서 찾아 처음 두 어절과 끝 어절을 서술하시오.



## 모택인 박준 활동

### 1 이 소설의 주요 사건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리해 보자.

- 1 ' '의 집  
'허생의 처'가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글 읽기에만 전념하는 '허생'을 나무라자, '허생'이 탄식하며 집을 떠남.
- 2 '변 씨'의 집  
'허생'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인 '변 씨'를 찾아가 만 냥을 빌림.
- 3 안성, 제주도  
'허생'은 안성에서는 과일을, 제주도에서는 말총을 매점매석하여 큰돈을 벌.
- 4 빈 섬  
'허생'은 나라에 들끓던 군도들을 빈 섬으로 데려가 이상 사회 건설을 시도함.
- 5 '허생'의 집  
집으로 돌아온 '허생'은 '변 씨'와 교유(交遊)하면서 '이완'을 만나 세 가지 계책을 제안하지만, '이완'이 이를 거절하자 명분만 중시하는 집권층을 크게 꾸짖고, 이튿날 종적을 감춤.

### 2 등장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정리해 보자.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	그렇게 생각한 이유
허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의 생계를 돌보는 것보다는 글 읽기를 통한 학문적 성취를 중시함.</li> <li>•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적으며, 돈은 수단적 가치로만 여김.</li> <li>• 비범한 능력과 이인(異人)의 풍모를 지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내의 불평불만에도 글 읽기에만 열중함.</li> <li>• 돈 오십만 냥을 바다에 버리고, 재물을 재앙이라고 말함.</li> <li>•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파악하여 매점매석을 통해 큰돈을 벌고, 경제적 이유로 도둑이 된 이들을 데리고 빈 섬에 들어가 이상 사회 건설을 시도함</li> </ul>
변 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탕하고 도량이 넓으며, 배포가 크고 대범함.</li> <li>• 현실적 감각을 지녔으며, 사람 보는 눈을 갖춤.</li> <li>• 사농공상의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라한 '허생'의 겉모습에도 '허생'의 인물됨을 꿰뚫어 보고 돈을 선뜻 빌려줌.</li> <li>• '허생'의 인물됨이 조선의 상황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여 '이완'에게 '허생'을 소개함.</li> <li>• '재물이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하겠냐'고 말하며 재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상인'을 '장사치'라고 표현함.</li> </ul>
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나,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고 보수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허생'을 찾아가나, '허생'의 세 가지 계책을 받아들이지는 않음.</li> </ul>

**1 「허생전」에 반영된 당대 조선의 현실을 파악해 보자.**

내용	당대 조선의 현실
'허생'이 만 냥으로 과일과 말총을 독점하였다가 되팔아 큰돈을 벌고, 조선 전체의 물가를 좌우함.	→ 조선의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함.(자급자족의 경제 구조로, 교통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해 물건의 국내·해외 유통이 어려워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가 가능함.)
양민이 군도가 되어 나라에 군도가 들끓음.	→ 나라에 군도가 들끓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였으며, 지배층들은 민생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치안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었음.
'허생'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세 가지 계책을 '이완'에게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함.	→ 불합리한 인재 등용, 무능력한 지배층, 허구적인 북벌론 추구 등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고, 지배층에게는 이러한 현실을 개혁할 의지가 없었음.

**2 다음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 「고향」이다. 이 소설을 읽고, 소설이 시대 현실을 반영하는 양상을 아래에 보자.**

“ 오시는 길입니까?”  
 “흠,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 군 H란 외따른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녀석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오려면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주지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굽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입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릴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밑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역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는 중 사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중략)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규슈 탄광에 있어도 보고, 오사카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벌이는 조금 나왔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율화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렇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뭇기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나 펍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더마.”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단 말씀이요?”  
 “흠, 그렇구마. 무너지다 만 다만 즐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기오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오?” /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똥똥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쪼렷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싶었다.

- , 「고향」

**(1) '그'의 삶을 통해 당시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추측해 보자.**

'그'는 고향에서 농사짓던 땅을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빼앗기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그 와중에 식구들이 죽고 그는 홀로 모진 고생을 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다 오래간만에 돌아가 본 고향은 폐허나 다름 없이 변해 있었다. 이러한 '그'의 힘든 삶은 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인 일제 강점기에 일제로부터 혹독한 지배를 받아야 했던 조선 민중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2) 소설이 시대 현실을 반영하여 창작됨을 고려할 때,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설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을 위해 아등바등하는 젊은이들의 삶.
- 노인 자살률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고독과 병고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의 현실.

**주요 문단**

1) [324쪽 4행] 허생은 목적골(墨積溝)에 살았다.

→ 조선 후기 남산 인근의 목적골에는 몰락한 양반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따라서 '허생'이 이곳에 살았다는 것은 그가 부와 명예, 권력 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 [325쪽 19~24행]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증언부연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인데,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 '변 씨' 집안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바라보는 시선과 '변 씨'가 '허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 '변 씨' 집안의 자제와 손들은 '허생'의 추레한 행색만 봤다면, '변 씨'는 외양은 초라하지만 당당한 언행의 '허생'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있다. 이를 통해 '허생'의 이인(異人)다운 면모는 물론, '허생'의 인물됨을 알아본 '변 씨' 또한 도량이 넓고 대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3) [326쪽 5~6행]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 '허생'은 안성에서 만 냥으로 과일을 모조리 사들여 과일 가격을 크게 뛰게 했다. '변 씨'라는 부자의 재산 일부인 만 냥에 조선 전체의 과일 가격이 들쭉날쭉했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의 경제 현실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알 수 있다.

4) [327쪽 13~15행] 이때, 변산(邊山)에 수천의 군도(群盜)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 도둑의 무리가 우글거리는 당대의 어지러운 현실을 보여 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선량한 백성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지배층의 무능과 연결하여 당시의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있으며, 군도들을 토벌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당시의 집권층이 무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328쪽 23~24행] 삼 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長崎島)로 가져가서 팔았다.

→ 빈 섬에 군도를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일본의 속주인 장기도에 양식을 팔았다는 것은 백성의 생활 안정과 해외 무역의 중요성을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6) [328쪽 28행]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 '허생'이 한 시험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매점매석을 통해 큰돈을 번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돈을 가지고 군도들을 빈 섬에 데려가 안정된 삶을 살게 한 것이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 일 중 어느 하나도 '조그만' 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말은 '허생'이라는 인물의 역량이 매우 출중함을 알려 준다. 아울러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라는 표현을 통해, 그동안 '허생'이 했던 모든 행위들이 돈을 벌거나 세속의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 [330쪽 12~14행]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되지.” / 했다.

→ '허생'은 '글을 아는 자들'을 '화근', 즉 재앙의 근원에 비유하였다. 글을 아는 사람들은 현실과 유리된 채 이론과 관념으로만 세상을 논하던 당시 집권 양반층을 의미한다. '허생'은 지식 계층이 학문을 왜곡하여 양민들의 삶과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들

을 모두 섬에서 내보내려고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관념적인 공리공론을 일삼는 지식 계층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다.

8) [332쪽 9행]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 ‘허생’의 재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 구절을 통해 앞서 ‘허생’이 큰돈을 벌었던 행위의 목적이 돈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질적 욕망을 가볍게 여기는 ‘허생’의 모습을 통해 당시 지배층의 부패상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333쪽 12~14행]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오랑개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 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 ‘남한산성에서 오랑개에게 당했던 치욕’이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의 대군에 맞서 항전하다가 조선의 임금 인조가 삼전도에 나아가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한 사실을 말한다. 조선은 여진족에 의해 세워진 청나라를 오랑개라고 멸시했지만, 결국 항복을 함으로써 이러한 치욕을 겪게 되었다. 이후 이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조선 지배층의 무능과 부패로 이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10) [334쪽 16~21행]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내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 했다.

→ ‘이완’은 임금의 신임을 받는 신하이다. 그런 신하에게 ‘허생’은 제갈량과 같은 인물을 추천할 테니 임금으로 하여금 세 번 그를 직접 찾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묻지만, ‘이완’은 어렵다고 한다. 이는 임금을 비롯한 조선의 조정이 권위와 체면을 중시하며, 훌륭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334쪽 24~27행]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 ‘허생’이 제시한 제이의 계책으로, 조선에 망명해 와 있는 명나라 장졸들에게 왕족의 딸들을 시집보내고, 귀족들의 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내용이다. 이는 명나라 망명객들을 우대하는 것을 통해 당시 종실과 훈척 권귀의 기득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12) [335쪽 13행~336쪽 3행] “……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

→ ‘허생’이 제시한 제삼의 계책으로, 지배층이 청나라와 실질적으로 교류하며 그들을 파악해야 비로소 국치를 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13) [336쪽 11~12행]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나? 오랑개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은 데가 있느냐? ……”

→ 사대부란 원래 한족이 오랑개에 대한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 만든 것인데, 오랑개 땅의 지배층이 스스로를 사대부라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14) [336쪽 15~17행] “…… 번오기(樊於期)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武靈王)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

→ 주체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작가의 의식이 나타난 부분이다.

15) [336쪽 22행] “……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 ‘허생’은 ‘이완’과 같은 집권 계층의 인식이 조선의 현실을 개혁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16) [336쪽 25행]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 ‘허생’이 종적을 감추었다는 결말은 ‘허생’의 이인(異人)다운 면모를 부각시키고, ‘허생’의 주장이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 문제 풀이

### 1) 324쪽 - '허생'과 '허생의 처'가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허생'은 독서 자체를 즐기며 실생활을 등한시하는 인물이고, '허생의 처'는 독서를 실생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경제 활동을 권유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다.

### 2) 325쪽 - '변 씨'를 찾아와 돈을 빌리는 '허생'의 태도는 어떠한가?

'변 씨'가 '허생'을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 돈을 빌려 달라는 '허생'의 태도는 매우 당당했음을 알 수 있다.

### 3) 326쪽 - '허생'이 과일과 말총을 모두 사들인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허생'이 과일과 말총을 모두 사들인 결과 과일과 말총의 가격이 폭등하였고, '허생'은 큰돈을 벌게 되었다.

### 4) 327쪽 - 백성들이 도둑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소한의 생계마저 꾸려 나갈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이는 당시의 피폐한 경제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조선 백성의 처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다.

### 5) 328쪽 - '허생'이 군도를 이끌고 '빈 섬'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가난 때문에 양민으로서의 평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빈 섬으로 간 것이다.

### 6) 330쪽 - '허생'이 '글을 아는 자'를 '화근'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허생'은 글을 아는 자들이 현실과 유리된 채 이론과 관념으로만 세상을 논하여 양민과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화근'으로 표현하며 모두 섬에서 내보내려고 한 것이다.

### 7) 331쪽 - '허생'이 '변 씨'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

'허생'이 '변 씨'에게 값은 십만 냥은 처음 '허생'이 빌린 돈의 10배에 이르는 액수이다. '변 씨'는 그것을 사양하고 빌려준 돈에 십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겠다고 하였다. '변 씨'는 장사치로서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허생'은 비록 자신이 만 냥으로 매점매석하여 큰 돈을 벌었지만 자신은 장사치가 아니며 사농공상에 따른 사대부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있다. '허생'이 지닌 삶의 목표는 글 읽기에 있지, 결코 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쳐서 받겠다는 '변 씨'의 말에 화가 난 것이다.

### 8) 332쪽 - '변 씨'와 '허생'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재물을 대하는 '허생'의 태도는 어떠한가?

'허생'은 재물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정신이 괴롭게 된다고 여기고, '변 씨'가 양식과 옷을 많이 가져오기만 해도 그것을 재앙으로 치부한다. '허생'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결핍이 없는 정도의 재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 9) 334쪽 - '허생'은 자신을 찾아온 '이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허생'은 오랫동안 '이완'을 밖에 세워 두고, '이완'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일어 서지도 않으며 그에게 반말을 한다. 이를 통해 무능한 위정자에 대한 '허생'의 반감과 불신의 태도가 드러난다.

### 10) 335쪽 - '허생'이 '이완'에게 제시한 세 가지 계책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계책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올바른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실과 훈척 권귀의 기득권을 폐지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청나라와 문물을 교류하는 것이다.

### 11) 336쪽 - '허생'이 '이완'을 크게 꾸짖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완'이 '허생'이 제기한 세 가지 계책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생'은 '이완' 역시 당대의 지배층이 가진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그를 꾸짖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굴,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濟州道)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나)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竹)를 엮어 울을 만들었다. 땅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 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長崎島)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삼십만여 호나 되는 일본(日本)의 속주(屬州)이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인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편 이천 명을 모아 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富)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衣冠)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없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든랑 오른손에 손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케 하여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려다.”

하고 돈 오십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워 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라!”

했다.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다.

(다) 변씨는 본래 ㉣이완(李浣) 이 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향(委巷)이나 여염(閭閻)에 혹시 쓸 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변씨

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이 이름이 무엇이냐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소인이 그분과 ㉦상종해서 3년이 지니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웁니다.”

“그인 이인(異人)이야. 자네와 같이 가 보세.”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 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체하고,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 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 둘 곳을 몰라 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라)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에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 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伯舅之國)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禮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나?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商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개미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오기(樊於期)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武靈王)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大明)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판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나?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 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 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나?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곳이 없었다.

- 박지원, '허생전'

**신부고등학교 (경기)**

1.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대한 탄식이다.
- ② ㉡ :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 이야기의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 : 허생의 당시 위정자들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다.
- ④ ㉣ : 형식적인 예법보다 실리를 추구한 역사적 인물들을 예로 들었다.
- ⑤ ㉤ : 주인공의 이인(異人)다운 모습을 부각하는 고대소설의 전형적인 결말 처리 방식이다.

**신부고등학교 (경기)**

2. ㉠ ~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관문
- ② ㉡ : 구제
- ③ ㉢ : 어촌
- ④ ㉣ : 친교
- ⑤ ㉤ : 하인

**신부고등학교 (경기)**

3. (라)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ㄴ.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ㄷ.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인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ㄹ.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허생은 묵적굴(墨積洞)에 살았다. 곧장 남산(南山)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립문이 열렸는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질을 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科擧)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 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A]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장사는 밀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월각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칠 년인걸…….”

하고 획 문 밖으로 나가 버렸다.

<중략>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兩)을 꾸어주시기 바랍니다.” 변 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중략>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고,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굴,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중략>

허생은 몹소 이천 명이 일 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竹)를 엮어 울을 만들었다. 땅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 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삼 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備蓄)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長崎島)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삼십만여 호나 되는 일본(日本)의 속주(屬州)이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녀 이천 명을 모아 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富)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衣冠)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던지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나. 다만, 아이들을 낳거든 오른손에 손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케 하여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려다.”

하고 돈 오십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워 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든,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라!”

했다.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다.

<중략>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 냥을 실패 보지 않았소?”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오. 만 냥이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하겠소?” 하고, 십만 냥을 변 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의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 읽기를 중도에 폐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 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 씨는 대경해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십분의 일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렸다.

<중략>

이튿날, 변 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백만 냥을 버리고 십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중략>

변 씨가 이번에는 탄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 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중략>

변 씨는 본래 이완 이 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 씨에게 위항이나 여염에 혹시 쓸 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변 씨는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중략>

이 대장은 몸 둘 곳을 몰라 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중략>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伯舅之國)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禮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중략>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 박지원, 「허생전」

**구리여자고등학교 (구리)**

**4. [A]에서 ‘허생’과 ‘허생의 처’가 갈등하는 원인 <조건>에 맞춰 서술하시오.**

<조건>

- ‘독서’에 대한 인물의 가치관과 목적을 언급할 것.
- ‘허생은 ~ 인물이고, 처는 ~ 인물이기 때문이다.’라는 형태로 쓸 것.

**구리여자고등학교 (구리)**

**5. 윗글의 빈 점과 <보기>의 울도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왕이 길동을 잡으라는 체포명령을 전국에 내렸으나 길동의 도술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에 길동의 아버지 흥판서를 회유하고 길동의 인형도 가세하여 길동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길동에게 병조판서를 제수, 회유한다. 길동은 서울에 올라온 병조판서가 된다. 그 뒤 길동은 고국을 떠나 남경으로 가다가 산수가 수려한 울도국을 발견, 요괴를 퇴치하여 볼모로 잡혔던 미녀를 구하고 울도국 왕이 된다. 마침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와 삼년상을 치른 뒤 울도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잘 다스린다.

- 허균, 「홍길동전」

- ① ‘빈 점’은 허생의 도피처로 완전한 이상향이다.
- ② ‘울도국’은 장유유서를 바탕으로 하는 농경 사회이다.
- ③ ‘빈 점’은 해외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비현실적 공간이다.
- ④ ‘빈 점’은 해외 무역을 실현하는 공간이나 ‘울도국’은 비현실적 공간이다.
- ⑤ ‘빈 점’과 ‘울도국’은 경제적 구조의 취약함을 드러내기 위한 공간이다.

**구리여자고등학교 (구리)**

6. 윗글의 결말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썼을 때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튿날, 이완 대장이 다시 찾아가 허생이 제시한 세 가지 계책을 임금께 건의하겠다고 하자, 허생은 이완 대장에게 어제의 무례함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

- ① 허생이 가지고 있는 실학적 면모가 더욱 부각되는 걸.
- ② 허생의 이인(異人)다운 면모는 다소 사라지는 것 같아.
- ③ 바꾸어 쓴 결말이 좀 더 완결된 구조를 지니게 되는데.
- ④ 허생과 이완의 갈등이 너무 쉽게 해결되어 버린 것 같아.
- ⑤ 독자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운의 묘미가 없어.

**구리여자고등학교 (구리)**

7. <보기>와 윗글의 내용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정선군(旌善郡)에 한 양반이 살았다.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매양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으레 몸소 그 집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고을의 환자를 타다 먹은 것이 쌓여서 천 석에 이르렀다.

강원도 감사(監使)가 순시하다가 장부를 보고 “어떤 놈의 양반이 관아의 곡식을 훔쳤단 말이나?”하고, 그 양반을 잡아 가두게 했다. 양반은 밤낮 울기만 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중략>

이 소식을 들은 한 부자가 가족들과 의논하기를, “내가 장차 그의 양반을 사서 가져보겠다.”하였다.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대신 관아의 곡식을 갚아 주겠다고 청했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했다. 부자가 양반 대신 곡식을 갚자 감사는 관부(官府)로 돌아가서 고을 안 사족(士族) 및 농공상(農工商)들을 모두 불러 관정(官庭)에 모은 후 양반매매 증서를 만들었다.

양반은 아비한 일을 딱 끊고 옛을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할 것이며, 손에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위도 버선을 벗지 말고, 밥을 먹을 때 맨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국을 먼저 훌쩍 훌쩍 떠먹지 말고, 무엇을 후루루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찧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중략> 이와 같은 모든 품행이 양반에 어긋남이 있으면, 이 증서를 가지고 관(官)에 나와 변정할 것이다.

부자는 호장(戶長)이 증서를 읽는 것을 쪽 듣고 한참 머영하니 있다가 말했다.

“양반이라는 게 이것뿐입니까? 문서를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했다.

그래서 문서를 다시 작성했다.

“하늘이 민(民)을 낳을 때 민을 넷으로 구분했다. 사민(四民)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사(士)이니 이것이 곧 양반이다.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니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않고 약간 문사(文史)를 섭렵해 가지고 크게는 문과(文科) 급제요, <중략>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무단(武斷)을 하여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자기 논이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를 팔시하라. 너희들 코에 잣물을 들이붓고 머리 끄덩을 희희 돌리고 수염을 낚아채더라도 누구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는 증서를 중지시키고 혀를 내두르며

“그만 두시오, 그만 두어. 맹랑하구면. 나를 장차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하고 머리를 흔들고 가버렸다. 부자는 평생 다시 양반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한다.

- 박지원, 「양반전」

- ① 윗글과 <보기> 모두 양반이 지켜야 하는 예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윗글에서는 당대 현실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당대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에 그친다.
- ③ 윗글에 비해 <보기>는 양반이 지켜야 할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양반계층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시대적 노력을 담고 있다.
- ④ 윗글의 ‘허생’은 과일을 매점매석하여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이지만 <보기>의 ‘양반’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물로 그려진다.
- ⑤ 윗글의 ‘허생’이 청과의 교류를 제시하며 당시 사대부를 비판하는 것에 비해 <보기>는 양반 거래 증서를 만드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회적인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구리여자고등학교 (구리)**

8. 윗글을 읽은 후 학생들이끼리 토론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생’이 ‘이완’의 말을 가로막고, 반말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당시 무능한 위정자들에 대한 작가의 불신을 알 수 있었어.
- ② ‘허생’이 백만 냥 가운데 오십만 냥을 바다에 버린 것은 필요 이상의 돈이 국가 경제를 어지럽힐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야 아닐까?
- ③ ‘허생’은 당시 선비들과는 다른 특이한 인물이야. 결국 돈을 번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여 꿈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봐야지.
- ④ ‘허생’은 지나친 재물은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빈민을 구제하고 나라의 부강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이중적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
- ⑤ 하지만 장사꾼을 경멸하는 것이나 조정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백성을 위한 현실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허생’의 한계로 봐야 하지 않을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으로부터 구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릴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밀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중략>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별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규슈 탄광에 있어도 보고, 오사가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별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넓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율화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리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돌려고 별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뭉기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나 펍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열썬을 앓더마.”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던 말씀이오?”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 만 담만 즐비하게 남았드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기오.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A]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오?”

하고 그의 짜는 듯 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돌돌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혈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여호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뒤 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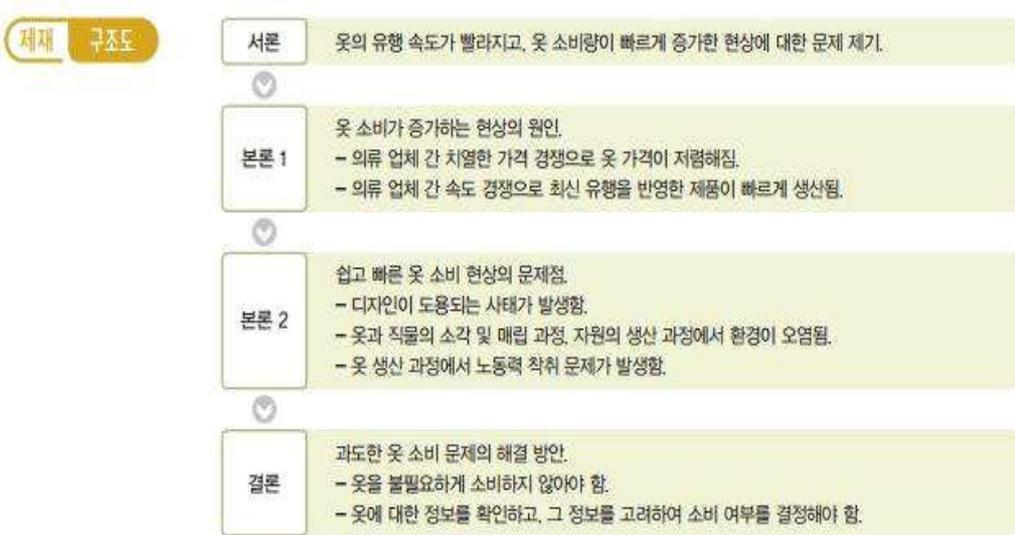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 현진건,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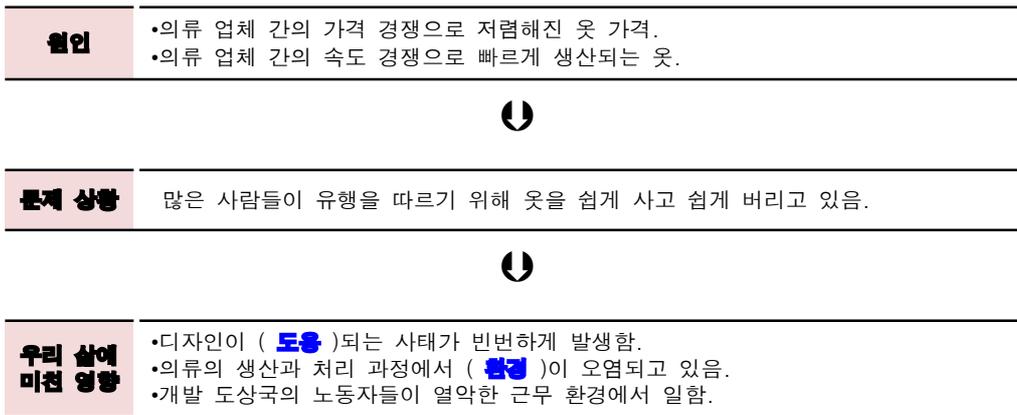


#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문제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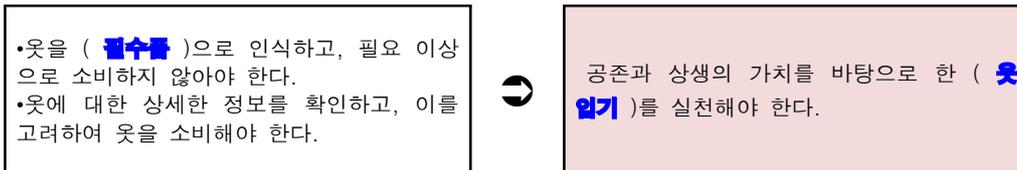
<b>갈래</b>	논설문
<b>성격</b>	논리적, 분석적, 현실 비판적
<b>제지</b>	현대 사회의 빠른 옷 소비 현상
<b>주제</b>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 <b>옷 입기</b> )의 필요성.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설명함.</li> <li>•구체적이고 객관적인 ( <b>근거</b> )를 다양하게 들어 주장의 신뢰성을 높임.</li> <li>•일상 속의 현상에서 사회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독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li> </ul>



## 1.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의 원인과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



## 2.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



## 모택신 학습 활동

1 이 글의 내용을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1)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상황과 그 문제 상황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자.

상황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___을 따르기 위해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린다.	
↓	
우리 삶에 미친 영향	
도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 의류 업체는 새로운 옷을 빨리 생산하기 위해 남의 디자인을 도용한다.</li> <li>고발당해도 도용으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도용이 사라지지 않음</li> <li>도용에 대응하기 위해 원작 디자이너가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 과정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li> </ul>
환경 오염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해에 생산되는 옷 중에서 4분의 3 정도가 버려져 소각되거나 매립된다.</li> <li>버려지는 옷과 직물은 대개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이 나와 환경 오염을 가속화한다.</li> <li>옷의 재료인 면화의 생산 과정에서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고, 살충제가 지하수를 타고 강으로 흘러들어 가 물이 오염되어 동식물까지 병들게 한다.</li> </ul>
노동력 착취 측면	<p>의류 제작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의류 업체는 제품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고 과도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p>

(2)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글쓴이가 제시한 방안을 정리해 보자.

- 옷을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는다.
- 옷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를 얻기 어려울 때는 해당 기업에 생산 과정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 옷의 정보를 고려하여 공정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옷을 구매한다.

2 글쓴이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1) 이 글에서 의문이 든다거나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써 보자.

- 원작 디자이너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값싼 옷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구조 때문일까?
- 소비자가 기업에 옷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정보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에 비해 옷의 순환 기간은 너무 짧지 않은가?

(2) (1)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싶은 내용을 찾고,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 ㉠: • 디자인 도용으로 원작 디자이너의 지적 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는 단지 값싼 옷을 빠르게 소비하는 최근의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만으로는 보기 어렵다.
- 글쓴이는 옷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해당 기업에 옷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라고 하였는데,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 ㉡: • 디자인 도용이 빠른 옷 소비가 일반화된 최근에 와서 발생한 문제인지 조사해 보고 관련 내용을 글에 추가한다. 또한

옷이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구조하에서도 지적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본다.

•해당 기업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것 외에 옷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글에 내용을 추가한다.

## 구입 원인

1) [352쪽 4~5행] 어제 입었던 옷이 오늘 입은 옷에 밀려나고, 오늘 입은 옷은 다시 내일 입을 옷에 밀려난다.

→ 옷은 유행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진다. 매일같이 새로운 옷이 기존의 옷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만큼 옷이 유행에 민감함을 강조하고 있다.

2) [352쪽 11~12행]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게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인이 구입한 옷의 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류 소비의 세계적인 흐름임을 말하고 있다.

3) [352쪽 19~20행]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의류 산업이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라는 것이다.

→ 앞에서 글쓰이는 의류 사업의 성패가 옷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품 생산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의류 산업에서는 옷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한 것이다.

4) [353쪽 5~6행] 가격이 싼데도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 때문이다.

→ 최신 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기 위한 의류 업체 간의 경쟁 때문에 우리가 유행이 반영된 옷을 쉽고 빠르게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5) [353쪽 19~20행]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반가워만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 소비자는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의류 업체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글쓰이는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려 하고 있다.

6) [354쪽 3~4행] 하지만 새로운 옷은 계속 제작해야 하니 결국 이런 업체는 남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불법 복제품을 만든다.

→ 최근에는 신상품을 빨리 만들어서 싼 가격에 파는 것이 의류 업체의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의류 업체는 이를 위해, 옷을 디자인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도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옷을 빨리 만들어서 싸게 파는 것의 문제점이다.

7) [354쪽 16~19행] 그린피스(Green Peace)의 2016년도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의 양은 약 800억 점이다.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 남짓이니 한 사람당 10점 이상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러나 그중 4분의 3, 즉 600억 점의 의류는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 많은 양의 옷이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있으며, 그중 600억 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 버려지고 있다. 글쓰이는 이 버려진 옷들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옷 소비 현상의 문제점이다.

8) [354쪽 25~28행] 대표적인 천연 섬유 재료인 면화는 전 세계 경작지의 약 2.5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양이 전 세계 살충제 사용량의 약 16퍼센트에 달한다. 작물로서는 단위 면적당 살충제 사용량이 최고인 셈이다.

→ 옷 생산 재료인 면화의 단위 면적당 살충제 사용량이 작물 중 가장 높다는 것은, 면화 생산이 초래한 환경 오염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한 살충제 사용은 토양 오염은 물론 수질 오염까지 가져올 수 있으며, 살충 과정에서 직접 인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9) [355쪽 2행]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버리는 과정에서 자연이 고통받는 것이다.

→ 옷을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게 되면서 더 많은 옷과 직물이 버려지게 되었다. 버려진 옷과 직물은 매립되고 소각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가속화한다. 또한 옷의 재료가 되는 면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살충제가 사용되는데, 이 역시 환경을 오염하고 있다. 따라서 글쓰이는 이러한 이유로 자연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9-(1)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10) [355쪽 8~9행]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는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쉬는 시간도 빼앗기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 의류 업체는 옷을 더 저렴하고 빠르게 판매하여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 납품 기한을 최소한으로 준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노동을 강요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러한 노동력 착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1) [355쪽 12~13행]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 ‘이런 현실’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더 빠르고 싸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의미한다. 글쓴이는 현재의 의류 소비 풍조와 시장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12) [356쪽 1~2행] 의류 업체는 이윤을 내는 데 열중하고, 소비자는 유행을 좇아 옷을 구매하다 보니 기업 윤리나 소비 윤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지나친 옷 소비 현상의 원인은 의류 업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빠르고 싸게만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의 잘못된 소비 태도에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로서 실천해야 하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13) [356쪽 6~7행] 옷을 일회용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인식해야 과도하게 옷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

→ 글쓴이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옷을 한 번 입고 버리고 다시 사 입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한 번 구매하면 오래도록 입을 꼭 필요한 물건으로 인식해야 과도하게 옷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14) [356쪽 17~18행] 하지만 옷에 싼 가격을 매기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가격 역시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옷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디자인을 도용하고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노동력을 착취하여 옷을 만드는 등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저렴한 옷 가격 또한 불공정한 것이다. 따라서 옷 가격이 높더라도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만든 옷을 소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문명 문명 문명

1) 353쪽 -소비자가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하게 된 원인 두 가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옷 가격이 점점 낮아지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으로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생산하는 기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2) 354쪽 -일부 의류 업체가 디자인 도용 혐의로 고발당하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크고,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소송에서 디자인 도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3) 355쪽 -의류 업체가 개발 도상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류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므로 임금이 낮은 노동력을 쓸수록 기업의 이윤이 커진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4) 356쪽 -글쓴이가 말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란, 과도한 옷 생산과 불필요한 옷 소비가 일으키는 디자인 도용과 환경 오염,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당한 옷 소비를 함으로써,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의 환경까지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가) 요즘은 유행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거의 매일 새로운 옷이 쏟아져 나오고, 온갖 광고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유행을 따라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새 옷을 입는 즐거움도 잠시, 유행은 어느새 바뀌고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할 옷이 되어 버려진다. 미국에서 발간한 한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인이 구입한 옷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다섯 배나 더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게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①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점점 내려가는 옷 가격이다. A 기업이 청바지 한 벌을 5만 원에 시장에 내놓았는데, B 기업이 같은 품질의 청바지를 4만 5천 원에 판다면 소비자는 A기업보다는 B기업의 청바지를 살 것이다. 의류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격이 싼데도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옷을 만들어 가게에 전시하기까지는 6개월가량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신 유행을 반영한 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몇몇 의류 업체는 그 기간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파는 것은 이제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이 전략을 선택한 많은 의류 업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놀랄 만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열렬한 호응이다.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소비자는 이러한 옷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 의류 업체도 함박웃음을 짓는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 이러한 변화가 과연 반가워만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우선 디자인이 도용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류 업체는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디자인 도용에 대응하기 위해 ㉡ 원작 디자이너는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소송의 경우, 창조와 모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게다가 소송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디자이너도 많다. 상황이 이렇게 보니 원작 디자이너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품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 도용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는 디자이너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그린피스(Green Peace)의 2016년도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의 양은

약 800억 점이다.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 남짓이니 한 사람 당 10점 이상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러나 그중 4분의 3, 즉 600억 점의 의류는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옷의 원재료인 직물은 한 해에 약 40만 제곱킬로미터가 생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토를 약 네 번 덮을 수 있는 넓이다. 그중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직물의 양은 약 6만 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를 약 서른두 번 덮을 수 있는 넓이다. 버려지는 옷과 직물 중 65퍼센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매립해도 좀처럼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을 내뿜어 환경 오염을 가속화한다.

자원의 생산 과정에서도 환경이 오염된다. 대표적인 천연 섬유 재료인 면화는 전 세계 경작지의 약 2.5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양이 전 세계 살충제 사용량의 약 16퍼센트에 달한다. 작물로서는 단위 면적당 살충제 사용량이 최고인 셈이다. 맹독성 살충제는 토양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타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 ㉢ 동식물을 병들게 한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버리는 과정에서 자연이 고통 받는 것이다.

㉣ 소비자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싼 옷을 만들기 위해 ㉤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는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싼 가격으로 경쟁하는 옷, 더 빠르게 유행을 따라가는 옷을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에서, ㉥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의류 업체는 이윤을 내는 데 열중하고, 소비자는 유행을 좇아 옷을 구매하다 보니 기업 윤리나 소비 윤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무엇보다도 옷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옷을 여러 벌 산적은 없는지, 일회용품처럼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의 소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옷을 일회용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인식해야 과도하게 옷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내가 입는 옷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환경오염, 기업의 노동력 착취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옷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옷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옷을 소비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 옷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당연히 그 비용은 옷 가격에 반영된다. 옷이 더 비싸지는 것이다. 하지만 옷에 싼 가격을 매기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가격 역시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우고등학교 (경북)**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표현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구체적 사례를 통해 문제의 실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글쓴이의 생각에 대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경우고등학교 (경북)**

2. 이 글의 내용으로 ㉠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치열한 가격 경쟁.
- ② 옷 가격이 점점 내려감.
- ③ 유행을 쫓는 소비자의 성향.
- ④ 제품 생산 기술의 발달과 혁신.
- ⑤ 의류 업체들의 제품 생산 속도 경쟁.

**경우고등학교 (경북)**

3. ㉡을 참고할 때 ㉢ ~ ㉤ 중에서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 ㉣                      ② ㉣, ㉤
- ③ ㉣, ㉤                      ④ ㉢, ㉤, ㉥
- ⑤ ㉢, ㉣, ㉤

**경우고등학교 (경북)**

4. (다)글의 작문 맥락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 ② 예상 독자는 소비자라 생산자이다.
- ③ 옷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옷을 소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공정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옷에 대한 소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 ⑤ 자신의 옷 소비 생활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제 입었던 옷이 오늘 입은 옷에 밀려나고, 오늘 입은 옷은 다시 내일 입을 옷에 밀려난다. 우리가 유행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연속된 과정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유행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거의 매일 새로운 옷이 쏟아져 나오고, 온갖 광고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유행을 따르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새 옷을 입는 즐거움도 잠시, 유행은 어느새 바뀌고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할 옷이 되어 버려진다. 미국에서 발간한 한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인이 구입한 옷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다섯 배나 더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게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점점 내려가는 옷 가격이다. A 기업이 청바지 한 벌을 5만 원에 시장에 내놓았는데, B 기업이 같은 품질의 청바지를 4만 5천 원에 판다면 소비자는 A 기업보다는 B 기업의 청바지를 살 것이다. 의류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의류 산업이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라는 것이다. 의류 산업은 제품을 만드는 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전체 생산 비용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제품 가격을 낮추려면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많은 의류 업체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입은 옷의 원산지 표시를 살펴보면 많은 옷이 이들 나라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이 싼데도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옷을 만들어 가게에 전시하기까지는 6개월가량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신 유행을 반영한 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을수록 경

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몇몇 의류 업체는 그 기간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축소하거나 없애 제작 기간을 줄이고, 가능한 온갖 운송 방법을 사용하여 운송 시간도 단축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단 2주 만에 제품을 생산해서 매장에 선보이는 의류 업체까지 등장하였다.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파는 것은 이제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이 전략을 선택한 많은 의류 업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놀랄 만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열렬한 호응이다.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소비자는 이러한 옷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 의류 업체도 함박웃음을 짓는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반가워만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우선 디자인이 도용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류 업체는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옷은 계속 제작해야 하니 결국 이런 업체는 남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불법 복제품을 만든다. 실제로 세계적인 규모의 한 의류 업체는 디자인 도용 혐의로 50번 넘게 고발당했고, 이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수차례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디자인 도용에 대응하기 위해 원작 디자이너는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소송의 경우, 창조와 모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게다가 소송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디자이너도 많다. 상황이 이렇게 보니 원작 디자이너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품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 도용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는 디자이너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그린피스(Green Peace)의 2016년도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의 양은 약 800억 점이다.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 남짓이니 한 사람당 10점 이상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러나 그중 4분의 3, 즉 600억 점의 의류는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옷의 원재료인 직물은 한 해에 약 40만 킬로미터가 생산되는 데, 이는 우리나라 국토를 약 네 번 덮을 수 있는 넓이다. 그중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직물의 양은 약 6만 킬로미터로, 제주도를 약 서른두 번 덮을 수 있는 넓이다. 버려지는 옷과 직물 중 65퍼센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매립해도 좀처럼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을 내뿜어 환경오염을 가속화한다.

자원의 생산 과정에서도 환경이 오염된다. 대표적인 천연 섬유 재료인 면화는 전 세계 경작지의 약 2.5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양이 전 세계 살충제 사용량의 약 16퍼센트에 달한다. 작물로서는 단위 면적당 살충제 사용량이 최고인 썬이다. 맹독성 살충제는 토양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타고 강으로 흘러들어

가 동식물을 병들게 한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버리는 과정에서 자연이 고통받는 것이다.

자연 못지않게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 많은 의류 업체가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옷을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는 방글라데시로, 약 400만 명의 노동자가 의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일부 의류 업체는 옷을 더 빨리,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이들 공장에 납품 기한을 최소한으로 준다.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는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쉬는 시간도 빼앗기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임금은 2014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7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싼 옷을 만들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는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싼 가격으로 경쟁하는 옷, 더 빠르게 유행을 따라가는 옷을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류 업체는 이윤을 내는 데 열중하고, 소비자는 유행을 좇아 옷을 구매하다 보니 기업 윤리나 소비 윤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무엇보다도 옷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옷을 여러 벌 산적은 없는지, 일회용품처럼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의 소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옷을 일회용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인식해야 과도하게 옷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내가 입는 옷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환경 오염, 기업의 노동력 착취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옷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옷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옷을 소비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 옷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당연히 그 비용은 옷 가격에 반영된다. 옷이 더 비싸지는 것이다. 하지만 옷에 싼 가격을 매기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가격 역시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일이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은 전 세계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아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를 깨닫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 이민정,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

**수내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최근의 현상을 언급하며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상황을 가정하여 사회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사회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중립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수내고등학교 (경기)**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옷의 제작 과정을 줄이면 다른 의류 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다.
- ② 의류 업체는 섬유 재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 도상국에 공장을 세운다.
- ③ 지적 재산권 소송에 드는 비용이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보다 크다.
- ④ 천연 섬유 재료인 면화는 합성 섬유에 비해 환경 오염유발 요인이 비교적 적다.
- ⑤ 사람들은 무조건 저렴한 상품의 옷을 찾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으로 옷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제 입었던 옷이 오늘 입은 옷에 밀려나고, 오늘 입은 옷은 다시 내일 입을 옷에 밀려난다. 우리가 유행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연속된 과정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유행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거의 매일 새로운 옷이 쏟아져 나오고, 온갖 광고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유행을 따라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새 옷을 입는 즐거움도 잠시, 유행은 어느새 바뀌고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할 옷이 되어 버려진다. 미국에서 발간한 한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인이 구입한 옷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다섯 배나 더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게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점점 내려가는 옷 가격이다. A 기업이 청바지 한 벌을 5만 원에 시장에 내놓았는데, B 기업이 같은 품질의 청바지를 4만 5천 원에 판다면 소비자는 A 기업보다는 B 기업의 청바지를 살 것이다. 의류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의류 산업이 대표적인 노동 집약 산업이라는 것이다. 의류 산업은 제품을 만드는 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전체 생산 비용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제품 가격을 낮추려면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많은 의류 업체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입은 옷의 원산지 표시를 살펴보면 많은 옷이 이들 나라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이 싼데도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의류 업체 간의 속도 경쟁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옷을 만들어 가게에 전시하기까지는 6개월가량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신 유행을 반영한 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몇몇 의류 업체는 그 기간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축소하거나 없애 제작 기간을 줄이고, 가능한 온갖 운송 방법을 사용하여 운송 시간도 단축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단 2주 만에 제품을 생산해서 매장에 선보이는 의류 업체까지 등장하였다.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파는 것은 이제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이 전략을 선택한 많은 의류 업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놀랄 만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열렬한 호응이다.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소비자는 이러한 옷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 의류 업체도 함박웃음을 짓는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반가워만 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우선 디자인이 도용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류 업체는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로운 옷은 계속 제작해야 하니 결국 이런 업체는 남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불법 복제품을 만든다. 실제로 세계적인 규모의 한 의류 업체는 디자인 도용 혐의로 50번 넘게 고발당했고, 이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수차례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입게 될 손해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디자인 도용에 대응하기 위해 원작 디자이너는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소송의 경우, 창조와 모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소송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게다가 소송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디자이너도 많다. 상황이 이렇게 보니 원작 디자이너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품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 도용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는 디자이너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그린피스(Green Peace)의 2016년도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의 양은 약 800억 점이다.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 남짓이니 한 사람 당 10점 이상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러나 그중 4분의 3, 즉 600억 점의 의류는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옷의 원재료인 직물은 한 해에 약 40만 제곱킬로미터가 생산되는 데, 이는 우리나라 국토를 약 네 번 덮을 수 있는 넓이다. 그중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직물의 양은 약 6만 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를 약 서른두 번 덮을 수 있는 넓이다. 버려지는 옷과 직물 중 65퍼센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매립해도 좀처럼 썩지 않고, 태우면 유해 물질을 내뿜어 환경 오염을 가속화한다.

자원의 생산 과정에서도 환경이 오염된다. 대표적인 천연 섬유 재료인 면화는 전 세계 경작지의 약 2.5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살충제의 양이 전 세계 살충제 사용량의 약 16퍼센트에 달한다. 작물로서는 단위 면적당 살충제 사용량이 최고인 셈이다. 맹독성 살충제는 토양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타고 강으로 흘러들어 가 동식물을 병들게 한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버리는 과정에서 자연이 고통받는 것이다.

자연 못지않게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 많은 의류 업체가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 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옷을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는 방글라데시로, 약 400만 명의 노동자가 의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일부 의류 업체는 옷을 더 빨리,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이들 공장에 납품 기한을 최소한으로 준다.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는 늦은 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하고 쉬는 시간도 빼앗기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임금은 2014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7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싼 옷을 만들기 위해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는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싼 가격으로 경쟁하는 옷, 더 빠르게 유행을 따라가는 옷을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류 업체는 이윤을 내는 데 열중하고, 소비자는 유행을 좇아 옷을 구매하다 보니 기업 윤리나 소비 윤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무엇보다도 옷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옷을 여러 벌 산적은 없는지, 일회용품처럼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의 소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옷을 일회용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인식해야 과도하게 옷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내가 입는 옷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환경 오염, 기업의 노동력 착취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할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옷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옷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옷을 소비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 옷을 생산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당연히 그 비용은 옷 가격에 반영된다. 옷이 더 비싸지는 것이다. 하지만 옷에 싼 가격을 매기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가격 역시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일이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은 전 세계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아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를 깨닫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할 때이다.

- 이연정, '옷 한 벌로 세상 읽기'

**등학교등학교 (부산)**

7. 윗글에서 옷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 ① 옷의 유행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모색한다.
- ② 합성 섬유가 아닌 천연 섬유 재료로 옷을 생산한다.
- ③ 시간당 임금이 낮은 나라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
- ④ 가능한 온갖 운송 방법을 사용하여 운송 시간을 단축한다.
- ⑤ 의류 업체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 또한 변화시켜야 한다.



##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필력 평가

<b>갈래</b>	토론(반대 신문식 토론)
<b>성격</b>	논리적, 설득적, 분석적
<b>제제</b>	교내 휴대 전화 사용
<b>주제</b>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b>특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문을 하여 상대방의 ( 논지 )를 논리적으로 반박함.</li> <li>•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주장의 타당성과 ( 신빙성 )을 높임.</li> </ul>

제제 구조도

**논제 제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 제시.

**입론과 반대 신문**

'찬성 1'의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할 자유가 있음.</li> <li>- 휴대 전화 규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절제 의지를 꺾음.</li> </ul>
'반대 2'의 반대 신문	직접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의 필요성을 반박함.
'반대 1'의 입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는 휴대 전화 사용의 자유보다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우선함.</li> <li>-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높음.</li> </ul>
'찬성 1'의 반대 신문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규제만으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찬성 2'의 입론	휴대 전화는 유용한 수업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반대 1'의 반대 신문	휴대 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며 찬성 측 의견을 반박함.
'반대 2'의 입론	휴대 전화는 주로 유희적 용도로 사용됨.
'찬성 2'의 반대 신문	휴대 전화가 주로 유희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함.

**반론**

- '반대 1'의 반론: 학생들을 학교생활에 집중하게 하고, 학생들이 휴대 전화에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함.
- '찬성 1'의 반론: 학생들이 개인 물품 사용을 규제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휴대 전화 사용 규제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막을 수 없음.
- '반대 2'의 반론: 아직 휴대 전화를 활용한 교육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친구, 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찬성 2'의 반론: 휴대 전화의 사용을 규제하기보다는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1. 토론의 필수 쟁점과 양측의 주장

찬성 측	필수 쟁점	반대 측
교내 휴대 전화 사용 여부는 학생의 자유이므로 규제 해선 안 된다.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하다.	바른 ( <b>생활 태도</b> )를 익히기 위해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휴대 전화 사용을 강제로 규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 <b>자율적</b> )인 절제 의지를 꺾는다.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스스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과도하게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
휴대 전화의 여러 기능은 다양한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휴대 전화를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휴대 전화의 교육적 효과는 ( <b>과장</b> )된 면이 있다.

토론의 핵심 쟁점

1 이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1) 필수 쟁점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 내용을 정리해 보자.

쟁점 1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하다.	
측	반대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 교내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이므로 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li> <li>• 근거 및 논증 구성: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디에서든 휴대 전화를 소지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자유가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기 위해서 교내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li> <li>• 근거 및 논증 구성 : 학교는 공동의 규범과 예의 범절을 익히는 곳이므로, 학교에서만큼은 휴대 전화를 사용할 자유를 내세우기보다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li> </ul>

쟁점 2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찬성 측	반대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 강제로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면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자율적인 절제 의지를 꺾게 된다.</li> <li>• 근거 및 논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스스로 휴대 전화 사용을 조절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li> <li>- 학교에서 올바른 휴대 전화 사용 태도를 익힐 수 있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스스로 이를 조절하기 어렵다.</li> <li>• 근거 및 논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과도하게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li> <li>-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아 청소년의 절제력은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li> </ul> </li> </ul>

**쟁점 3** 휴대 전화를 유용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축	반대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 휴대 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li> <li>• 근거 및 논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 전화의 여러 기능은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li> <li>- 수학, 과학, 국어 시간 등에 휴대 전화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휴대 전화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 휴대 전화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li> <li>• 근거 및 논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주어진 문제를 검색을 통해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li> <li>- 조사 내용에 따르면 휴대 전화는 주로 유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li> </ul> </li> </ul>

**(2) 찬반 양측의 논증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 쟁점 ③에 대한 반대 축 논증.
- 이유: 휴대 전화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직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이 보편적이지도 않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음악 감상이나 게임 등 유희적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찬성 2' 토론자의 입론에서 보인 '반대 1' 토론자의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에 보자.**

**(1) 자신이 '반대 1' 토론자라고 생각하고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해 보자.**

· '찬성 2' 토론자의 입론 도중에 내 의견을 말하여 '찬성 2' 토론자의 발언을 방해하였고 토론 진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찬성 2' 토론자의 의견을 반박하는 반대 신문을 할 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찬성 2' 토론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였다.

**(2) 토론 중에 (1)과 같이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반대 1' 토론자의 발언과 토론 과정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보자.**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발언 순서에 따라 말했을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때에도 상대방 주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들어 예의를 지키며 발언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토론 과정이 훨씬 원만하게 진행되었을 것이고,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토론에 임하여 토론의 수준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 주요 쟁점

- 1) [364쪽 4~6행]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학생 수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늘면서 학교 안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일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는 최근에 교내 휴대 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이 토론의 논제를 정하게 된 배경에 해당한다.
- 2) [364쪽 10~11행]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 토론의 배경 설명에 이어 이 토론의 주제인 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3) [364쪽 11~13행] 양측 토론자는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며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을 듣겠습니다.  
→ 사회자는 양측 토론자에게 토론의 규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반대 신문식 토론의 순서에 따라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 4) [365쪽 4~9행] 하지만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디에서든지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유독 학교에서만 개인의 소지품인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적인 규제는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휴대 전화 사용을 자율적으로 절제하려는 학생들의 의지마저 꺾고 있습니다.  
→ '찬성 1'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론을 펼치고 있다. 그 근거로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할 자유가 있다는 점과,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휴대 전화 사용을 절제하려는 학생들의 의지를 꺾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 5) [365쪽 23행~366쪽] 1행 학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의 규범과 예의범절을 익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서만큼은 학생들이 휴대 전화를 사용할 자유를 내세우기보다는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해야 합니다. [366쪽 3~5행] 하지만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2015년에 발표한 조사 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은 29.2퍼센트로 전체 성인의 휴대 전화 중독률 11.3퍼센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 '반대 1'은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론을 펼치고 있다. 그 첫 번째 근거로 학교는 공동의 규범과 예의범절을 익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휴대 전화를 사용할 자유보다 바른 생활 태도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함을 들고 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해 제시하고 있다.
- 6) [366쪽 11~13행] 이미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막을 수 있을까요?  
→ '찬성 1'의 반대 신문 부분이다. '찬성 1'은 학생들의 휴대 전화 사용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단지 학교에서만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지 않음을 묻고 있다. 이는 '반대 1'의 입론 중 교내 휴대 전화 사용 규제가 청소년의 휴대 전화 사용 중독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 7) [367쪽 1~3행] 이러한 수업에서 휴대 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 전화의 정보 검색 기능, 쌍방향 소통 기능,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능 등은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67쪽 9~11행 예를 들어 휴대 전화로 수학 시간에 칠판의 글씨를 사진으로 찍거나, 과학 시간에 실험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복습할 때 활용하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찬성 2'는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으므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론을 펼치고 있다. 그 근거로 휴대 전화의 여러 기능이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고, 그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 8) [367쪽 4~5행]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 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367쪽 15~17행 찬성 측 토론자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휴대 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반대 1'의 발언 부분이다. '반대 1'은 '찬성 2'의 입론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근거를 들어 질문해야 하는 반대 신문 때에도 '찬성 2'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근거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 9) [368쪽 2~6행] 이처럼 휴대 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한 가지 자극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자극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또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정보를 검색하여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

## 9-(2)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용 양상 때문에 휴대 전화는 학습보다는 주로 유희적 용도로 사용됩니다.

→ ‘반대 2’는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도가 높지 않으므로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론을 펼치고 있다. 그 근거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주어진 문제를 검색을 통해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휴대 전화가 주로 유희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10) [368쪽 10~11행] 청소년이 휴대 전화를 주로 유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찬성 2’의 반대 신문 부분이다. ‘찬성 2’는 ‘반대 2’가 입론에서 휴대 전화가 학습보다는 주로 유희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말한 것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질문하고 있다.

11) [368쪽 22~24행]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369쪽 1~3행]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내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 ‘반대 1’은 반론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집중하고, 휴대 전화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12) [369쪽 4~5행]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인 물품 사용을 규제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369쪽 7~8행] 그러나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찬성 1’은 반론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인 물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을 방지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13) [369쪽 11~13행] 휴대 전화를 활용한 교육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369쪽 15~16행] 학교에서만이라도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여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 ‘반대 2’는 반론에서 휴대 전화를 활용한 교육 기반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369쪽 18~20행] 따라서 휴대 전화의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을 폄하하고 사용을 제재하는 데만 급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 ‘찬성 2’는 매체 사용이 일반화된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휴대 전화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문제풀이

1) 366쪽 -‘찬성 1’과 ‘반대 1’의 입론에서 알 수 있는 필수 쟁점은 무엇일까?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부당한가의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휴대 전화 사용을 자율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다.

2) 367쪽 -‘찬성 2’의 입론 과정에서 보인 ‘반대 1’의 듣기·말하기 태도는 어떠한가?

‘찬성 2’의 입론 도중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여 ‘찬성 2’의 발언을 방해하고 있으며, ‘찬성 2’의 주장을 반박할 때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질문하고 있다.

3) 368쪽 -‘찬성 2’와 ‘반대 2’의 입론에서 알 수 있는 필수 쟁점은 무엇일까?

휴대 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필수 쟁점으로 볼 수 있다.

4) 369쪽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회자는 토론의 배경과 규칙을 설명하고 논제를 제시하며, 발언 순서에 따라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토론자의 발언을 정리·요약하여 말해 주기도 하며, 토론자가 토론 규칙을 어기거나 토론의 방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제지하여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 우리 학교를 포함한 상당수 학교에서는 등교 시에 휴대 전화를 거두어 갔다가 하교 시에 돌려주는데, 선생님께 휴대 전화를 내지 않는 학생은 벌점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한 학생이 학교 누리집에 교내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글을 올린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양측 토론자는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며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을 들겠습니다. <중략>

(나) 사회자 : 반대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2 :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소통하며 여러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친구, 선생님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학교에서 굳이 휴대 전화를 사용해야 하나요?

찬성 1 : 지식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올바른 휴대 전화 사용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내에서는 대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부모님과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에는 휴대 전화가 필요합니다.

(다) 사회자 : 찬성 측의 주장과 반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찬성 측 제2 토론자가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2 : 오늘날에 휴대 전화와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해졌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에서 휴대 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 전화의 정보 검색 기능, 쌍방향 소통 기능, 동영상 및 사진 촬영 기능 등은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반대 1 :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 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찬성 2 : 제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 반대 신문은 찬성 측의 입론 후에 들겠습니다.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입론을 계속해 주십시오.

찬성 2 : 예를 들어 휴대 전화로 수학 시간에 칠판의 글씨를 사진으로 찍거나, 과학 시간에 실험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복습할 때 활용하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모르는 단어의 뜻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휴대 전화의 교육적 활용도는 그 범위가 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제 반대 측 제1 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1 : 찬성 측 토론자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휴대 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찬성 2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휴대 전화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 휴대 전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신의 블로그에 소개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이제 반대 측 제2 토론자가 입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2 : 저는 휴대 전화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휴대 전화를 사용할 때를 떠올려 보면, 화면을 진득하게 보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금방 넘겨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휴대 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한 가지 자기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자극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또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정보를 검색하여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용 양상 때문에 휴대 전화는 학습보다는 주로 유희적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과 학습에 집중하고 친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사회자 : 그러면 찬성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 2 : 청소년이 휴대 전화를 주로 유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반대 2 : 한국 정보화 진흥원이 2015년에 발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이 휴대 전화를 이용하는 용도는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의사소통, 인터넷 검색, 게임, 음악 감상 순입니다. 이렇게 주로 유희적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 전화를 교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라) 반대 2 : 휴대 전화를 활용한 교육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적인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또한 요즘 청소년은 직접적인 소통보다 휴대 전화를 이용한 간접적인 소통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만이라도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여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경우고등학교 (경북)**

**1. 위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대 신문식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② 이 토론의 서두에는 논제 선정의 배경과 함께 논제를 제시하였다.
- ③ 사회자는 논제를 제시하고 발언 기회와 시간을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④ 논제의 종류로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등이 있으며 이 토론의 논제는 가치 논제이다.
- ⑤ 입론을 할 때, 찬성 측은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필수 쟁점별로 주장과 근거를 들어 논증한다.

**경우고등학교 (경북)**

2. 이 토론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측은 수업에서 휴대 전화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② 반대 측은 전문 기관의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청소년이 주로 유희적 용도로 사용하는 휴대 전화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 ③ 반대 측은 객관적인 근거 즉, 공신 기관의 조사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④ 찬성 측은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반대 측의 지적에 실제 교육 현장의 사례를 근거로 들어 이에 반박하고 있다.
- ⑤ 반대 측에서는 휴대 전화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에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보고 오히려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단점이 있다고 보았다.

**경우고등학교 (경북)**

3. (다)와 (라)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다루고 있는 필수 쟁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 ①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② 학생들은 휴대 전화를 자율적으로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교내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현재 상황은 부당하다.
- ④ 논제에 따라 쟁점을 적절하게 도출하고 쟁점별로 주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 ⑤ 휴대 전화를 유용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경우고등학교 (경북)**

4. ㉠과 같은 발언을 한 '반대 1'은 토론 시 갖추어야 할 예의를 어겼다. '반대 1'에게 요구되는 토론 예의는?

- ① 상대방의 발언 중 끼어 들어 말을 하는 것을 고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 ② 상대방의 입론에 객관적 근거가 명확한 지를 찾으며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 ③ 상대방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모두 들은 후 사회자의 순서 지정 후 의견을 말해야 한다.
- ④ 논제에 따른 필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⑤ 토론 중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자제해 가며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 중요하다.

**경우고등학교 (경북)**

5. 다음은 학교 토론 동아리에서 실시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글을 읽은 후 <보기>의 자료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사회자 :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 저희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성인 범죄에 비하면 처벌이 매우 약한 편이죠. 특히 만 14세 미만의 경우 주로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범죄의 정도도 심해지고 발생률도 증가한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낮다는 점이 특징인데, 현재와 같은 가벼운 처벌은 범죄 당사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재범률은 약 35%나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자 : 반대 측 확인 질문해 주십시오.

반대 2 :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낮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찬성 1 : 예, 그렇습니다.

반대 2 : 그러면 청소년들의 죄의식이 낮은 이유는 그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군요?

찬성 1 :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반대 2 : 이상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9-(2)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사회자 : 반대 측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재와 같은 수위로도 충분합니다. 확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한때의 충동이나 실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성인 범죄 수준의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 ○○○ 씨는 청소년들은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교화나 선도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교육과 선도를 통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면 성숙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처벌 강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 측 주장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는 우발적 동기에 의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우발적 범죄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반드시 경각심이 없기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찬성 측 확인 질문해 주십시오.

<보기>

철수는 교칙을 어겨 징계를 받은 후 친구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철수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에 철수는 교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변해 갔다. 이처럼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기대를 받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입장	활용 방안
㉠	찬성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낮은 이유가 주변 사람들의 기대감과 관련 있음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	찬성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처벌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부각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	반대	처벌을 강화하면 그에 대한 반발 심리로 인해 재범률이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	반대	처벌 강화보다 청소년 범죄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신뢰감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	반대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강화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 ① ㉠                      ② ㉡
- ③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논제 :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 참가자 : 찬성 측 토론자 2명, 반대 측 토론자 2명, 사회자.
- 토론 형식 : 반대 신문식 토론.
- 토론 순서

찬성 측		반대 측	
제1토론자 (찬성1)	제2토론자 (찬성2)	제1토론자 (반대1)	제2토론자 (반대2)
1. 입론			2. 반대 신문
4. 반대 신문		3. 입론	
	5. 입론	6. 반대 신문	
	8. 반대 신문		7. 입론
10. 반론		9. 반론	
	12. 반론		11. 반론

사회자 : (중략) 이번 시간에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양측 토론자는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며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을 들겠습니다.

찬성 1 : 휴대 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상당수 학교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디에서든지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유독 학교에서만 개인의 소지품인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적인 규제는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휴대 전화 사용을 자율적으로 절제하려는 학생들의 의지마저 꺾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되 학생 스스로 휴대 전화 사용을 조절하는 태도를 기르고, 휴대 전화 사용 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끔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반대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2 :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소통하며 여러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친구, 선생님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학교에서 굳이 휴대 전화를 사용해야 하나요?

찬성 1 : 지식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올바른 휴대 전화 사용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내에서는 대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부모님과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에는 휴대 전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자 : 반대 측 제1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동래고등학교 (부산)**

7. '반대1'의 말하기 태도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2' 토론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 ② 상대측의 의견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반박하고 있다.
- ③ 토론의 순서를 지키지 않아 토론 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 ④ '찬성2' 토론자가 발언을 끝내기 전에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답하기를 강요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였다.

**동래고등학교 (부산)**

8. ㉞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 ② 상대측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 ③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 ④ 지나치게 침체된 토론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 ⑤ 상대측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동래고등학교 (부산)**

9. 밑줄에서 찬성 측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내에서는 직접 대화의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부모님과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때나 응급 상황 때에는 휴대 전화가 필요하다.
- ② 청소년의 휴대 전화 중독률이 성인에 비해 높다는 점을 볼 때, 청소년의 판단력과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
- ③ 지식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올바른 휴대 전화 사용 태도를 익힐 수 있는 곳이 학교이다.
- ④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조절 의지를 꺾고 있다.
- ⑤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디에서든지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동래고등학교 (부산)**

10. <보기>의 쟁점을 기준으로 할 때, ㉠,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보기>	
휴대 전화를 유용한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찬성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 : 휴대 전화를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li> <li>• 근거 : 휴대 전화의 여러 기능은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li> <li>• 반대 신문에 대한 논증 구성 방법 : 휴대 전화의 교육적 용도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li> </ul>
반대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 : ( ㉠ )</li> <li>• 근거 : ( ㉡ )</li> <li>• 반대 신문에 대한 논증 구성 방법 : ( ㉢ )</li> </ul>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최근 한 학생이 학교 누리집에 교내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글을 올린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 ㉠ ) 이번 시간에는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양측 토론자는 토론 규칙을 잘 지키며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을 듣겠습니다.

찬성 1 : 휴대 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상당수 학교에서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 학생들은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디에서든지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를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유독 학교에서만 개인의 소지품인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적인 규제는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휴대 전화 사용을 자율적으로 절제하려는 학생들의 의지마저 꺾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되 학생 스스로 휴대 전화 사용을 조절하는 태도를 기르고, 휴대 전화 사용 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끔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반대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에 주십시오.

반대 2 :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소통하며 여러 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친구, 선생님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학교에서 굳이 휴대 전화를 사용해야 하나요?

**5-(2) 조선의 얼, 광화문**

1.③ 2.③ 3.④ 4.② 5.⑤ 6.③ 7.④ 8.② 9.오늘날 경복궁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첫째, 외형적으로 건축의 아름다움이고 둘째, 내면적으로 조선 왕조의 법궁이라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외국인들이 경복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역사의 만만치 않은 저력과 현재적 삶의 역사적 뿌리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여러 문화재를 복원해야 하는 이유는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우리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 가기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10.③ 11.④ 12.② 13.④ 14.④ 15.⑤ 16.⑤ 17.③ 18.⑤ 19.③ 20.② 21.④ 22.'붓으로'는 글을 쓰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을 드러내었다. 23.(1) 광화문을 의인화함으로써 친근감과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2) 광화문은 조선의 역사와 함께한 조선 민족의 역사와 혼, 민족의 정기를 지닌 문이다.

**5-(3)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1.② 2.① 3.⑤ 4.② 5.③ 6.⑤ 7.③ 8.② 9.상우네 동아리가 사진 전시회를 열기 위해 강당을 3일간 빌리는 것에 구청과 합의하였다. 10.⑤ 11.⑤ 12.③ 13.④ 14.③ 15.⑤

**6-(1) 두근두근 내 인생**

1.④ 2.① 3.⑤ 4.② 5.⑤ 6.② 7.㉠ 몽타주 ㉡ 이미지 8.장면 번호,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9.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모습에서 '아름'의 어른스러운 성격과 현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용기있는 면모가 드러난다. 10.④ 11.② 12.⑤ 13.③ 14.② 15.② 16.③ 17.⑤ 18.① 19.② 20.⑤ 21.④ 22.③ 23.② 24.① 25.⑤ 26.② 27.① 28.④ 29.④ 30.⑤ 31.③ 32.③ 33.① 34.④ 35.③ 36.② 37.⑤ 38.④ 39.③ 40.⑤ 41.④ 42.⑤ 43.② 44.② 45.(1) 하늘 공원 (2) 초저녁 46.② 47.④ 48.④ 49.② 50.① 51.③ 52.아름이와 '인증사진'찍길 거침없이 요구하는 데서, 아름이의 상황을 본인들과는 다른 것으로 여기는 차별을 엿볼 수 있다. 53.⑤ 54.② 55.③ 56.② 57.④ 58.사람들은 각자의 경험, 지식, 환경,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59.①

**6-(2)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1.② 2.① 3.⑤ 4.⑤ 5.⑤ 6.(1) 논제는 찬성 측의 입장

이 반영된 긍정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사형제도는 꼭 존재해야 한다. 7.⑤ 8.⑤ 9.⑤ 10.㉠: 맥락 ㉡: 목적 ㉢: 매체 11.⑤ 12.② 13.⑤ 14.④ 15.③ 16.④ 17.① 18.⑤ 19.② 20.③ 21.④ 22.③ 23.⑤ 24.⑤ 25.⑤ 26.① 27.③ 28.⑤ 29.② 30.④ 31.③ 32.⑤ 33.② 34.④ 35.① 36.③ 37.③ 38.② 39.② 40.① 41.⑤ 42.윗글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함을 주제로 삼고 있다. 43.⑤ 44.② 45.④ 46.③,④ 47.⑤ 48.② 49.④ 50.①

**7-(1) 국어의 문법 요소**

1.② 2.① 3.④ 4.② 5.② 6.④ 7.③ 8.② 9.④ 10.㉠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의 '-었-'은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하여진 것처럼 표현함. 11.① 12.② 13.⑤ 14.⑤ 15.④ 16.② 17.① 18.② 19.⑤ 20.④ 21.③ 22.② 23.⑤ 24.보러가는데 → 보러가는데 / 할머니가 → 할머니께서 / 좋아할 것 → 좋아하실 것 / 3만원 이십니다 → 3만원입니다 25.①-시-, -었- ② -이 26. ㄴ-손님, 이 커피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27.④ 28.④ 29.① 30.(1) 주체를 높이는 어미 '-시-'를 사용하여 '음료'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로 고쳐 써야 한다. (2) 청자에게 '좋은 하루'가 되라는 것은 어색하므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로 고쳐 써야 한다. 31.③ 32.② 33.첫 번째 문장은 단순히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화자의 과거 회상을 통해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여우가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먹었다는 사실을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34.② 35.④ 36.'잊혀진다'는 '잊-+-히-+-어지-+ㄴ+다'로 이중 피동이므로 '잊힌다'로 고쳐 써야 한다. '생각되어진다'는 '생각+-되-+-어지-+-ㄴ+다'로 '-되다'와 '-어지다'가 쓰인 이중 피동이며, 주어 '나'가 생각하는 것이므로, '생각한다'로 고쳐 써야 한다. 37.⑤ 38.① 39.② 40.③ 41.④ 42.④ 43.① 44.③ 45.④ 46.① 47.② 48.② 49.② 50.④ 51.③ 52.② 53.㉠-영미는 자기가 곧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께 자기도 가야 하냐고 물었다. 54.③ 55.⑤ 56.② 57.⑤ 58.④ 59.③ 60.⑤ 61.② 62.④ 63.④ 64.①

**7-(2) 국어의 어제와 오늘**

1.⑤ 2.④ 3.① 4.⑤ 5.㉠ ㄱ, ㄴ, ㄹ, ㅅ, ㅇ ㉡ ㆍ, 一, | 6.이어적기(연철) 7.⑤ 8.② 9.⑤ 10.③ 11.③ 12.⑤ 13.② 14.③ 15.⑤ 16. '爲嬴하야'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 잘 지켜지던 모음조화가 현대 국어에서는 '위하야'에서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다. '중동國'에의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서 '과'로 쓰인다. '스물'이 현대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 '스물'로 쓰인다. '흠배'에서 보듯이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주격조사 '가'가 중세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17.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기한다. 18.① 19.어휘 면에서 기존 어휘가 없어지기도 하고, 형태나 의미가 바뀌기도 하며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거나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한다. 어휘 소멸은 '전촉, 스뭇디', 의미 이동은 '어린, 어엿비', 의미 축소는 '말씀, 놈'이 그 예이다. 20.③ 21.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22.② 23.③ 24.③ 25.③ 26.② 27.㉢, ㉣, ㉤, ㉥, ㉦ 28.③ 29.④ 30.③ 31.⑤ 32.①③ 33.① 34.⑤ 35.공통적으로 설명한 문법 원리는 모음조화이다. 모음조화는 'ㅏ, ㅑ, ㅓ' 따위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ㅕ, ㅗ, ㅛ' 따위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36.④ 37.⑤ 38.① 39.(1) (가)에서는 '말쌈미(말쌈+이)' 등 이어적기가 보편적인 데 반해, (다)에서는 '몸이며(몸+이며)' 등과 같이 끊어적기가 확대되었다. 또한 (가)에서는 '생중' 등과 같이 한자어를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어 표기하는 동국정운식 표기가 사용되었으나 (다)에서는 '부모'와 같이 한자어를 현실음에 맞게 표기하였다. 40.㉠ 얼굴과 ㉡ 살은 ㉢ 받은 ㉣ 중세 국어에서는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것에서 현대 국어에서는 '안면'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 '술ㅎ'은 'ㅎ' 중성 체언'으로, 조사 '은'과 결합하여 '술흔'이 되었다. 현대 국어에서는 조사 '은'이 결합할 때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 중세 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줍-'이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41.① 42.① 43.⑤ 44.1) 어두자음군, ㅅ, ㅆ, ㅈ (2) 어렸슬, 잇서서 45.③ 46.(1) ㉠ 소리 나는 대로, ㉡ 어법에 맞게 (2) ㉢ 말씀, 놈 ㉣ 축소 47.④ 48.③ 49.④ 50.㉠부모, ㉡부사, ㉢씩, ㉣객체, ㉤줍 51.⑤ 52.① 53.④ 54.② 55.③ 56.③ 57.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실용 정신 58.훈민정음에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니 우리 것이 필요하다는 '자주정신', 한

자가 어려워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든 '창조정신',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쓰기에 편하게 만들고자 했던 '실용정신'이 나타난다. 59.8중성법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받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60.초성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ㄱ, ㄴ, ㅁ, ㅂ, ㅅ, ㅇ'을 만들었고, 가획의 원리에 의해 'ㅋ, ㅇ, ㆁ, ㆁ, ㆁ, ㆁ, ㆁ, ㆁ, ㆁ, ㆁ'을 만들었다. 중성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ㆍ, 一, |'를 만들었고, 합성의 원리에 의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ㅟ, ㅠ'를 만들었다. 종성은 종성부용초성에 의해 종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했다. 61.밍ㄱ노니 : 밉글- + -ㄱ- + -오- + -니 62.④ 63.③⑤ 64.① 65.④ 66.⑤

### 7-(3)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

1.④ 2.③ 3.④ 4.② 5.② 6.③ 7.⑤ 8.⑤ 9.③ 10.⑤ 11.③ 12.④ 13.① 14.③ 15.② 16.⑤ 17.② 18.⑤ 19.④ 20.④ 21.인내심을 가지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인생에서도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 8-(1) 시조 두 수

1.③ 2.④ 3.② 4.③ 5.① 6.④ 7.① 8. (나)는 종장을 감탄형 '모쳐라'로 시작하며, (라)는 결사를 간탄사 '아아'로 시작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9.④ 10.③ 11.⑤ 12.② 13.④ 14.한 가지 15.모쳐라 16.② 17.(다)의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와 <보기>의 '내 마음 베어 내어'는 모두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18.① 19.⑤ 20.③ 21.② 22.③ 23.③ 24.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서리서리 너털다가, 구뵈구뵈 퍼리라 25.(1) 3단 구성, 종결부의 감탄형 (2) ㉠ 모쳐라, 아아 ㉡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표현하고 시상을 전환한다. 26.③ 27.② 28.⑤ 29.③ 30.(1) 초장과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졌다, 종장의 첫음보가 3음절이나 시조의 정형적 형식에서 벗어나 있다. (2) 감탄사나 감탄형으로 시상을 종결하고 있다. 31.① 32.② 33.④ 34.③ 35.④ 36.② 37.④ 38.⑤ 39.④ 40.① 41.③ 42.③ 43.⑤ 44.①④ 45.들일 디 업스니 46.④ 47.⑤ 48.③ 49.④ 50.① 51.③ 52.①

### 8-(2) 속미인곡 / 진달래꽃

1.③ 2.④ 3.⑤ 4.① 5.④ 6.③ 7. (1)두 여인의 대화

형식 (2) 내 얼굴~ 누라서 되섯~고 8.④ 9.④ 10.② 11.(1)화자의 분신, 입을 향한 사랑과 정성, 입에 대한 현실과 희생, 순종 (2)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음과 후렴구가 있다. 12.② 13.④ 14.반어와 도치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며 입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15.③ 16.② 17.(1) 흥상을 니미 초고 취슈를 반만 거더 (2) 누, 밍그쇼셔 (3)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리라 18.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간신을 의미한다. 19.④ 20.④ 21.③ 22.⑤ 23.⑤ 24.당신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입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25.② 26.⑤ 27.③ 28.④ 29.② 30.② 31.㉠ 화자는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 3음보의 율격이다. 32.③ 33.④ 34.③ 35.③ 36.애이불비 37.시적 화자의 분신이자 입을 향한 사랑이다. 38.⑤ 39.④ 40.위증증가 41.서운하면 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42.⑤ 43.② 44.④ 45.(나)의 화자는 표면적으로는 떠나는 입을 축복하며 이별을 수용하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떠나는 입을 원망하며 입이 가지 않길 바란다. 46.③ 47.④ 48.③ 49.④ 50.⑤ 51.② 52.③ 53.④ 54. (1)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로 입의 옷을 적실 수 있을 만큼 입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 (2) 소극적인 낙월에 비해 적극적으로 입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라는 의미이다. 55.④ 56.④

**8-(3) 허생전**

1.⑤ 2.③ 3.② 4.허생은 독서 자체를 즐기며 실생활을 등한시하는 인물이고, 처는 독서를 실생활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경제 활동을 권유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5.④ 6.④ 7.② 8.③ 9.③ 10.③ 11.⑤ 12.① 13.③ 14.⑤ 15.① 16.① 17.② 18.② 19.③ 20.⑤ 21.⑤ 22.⑤ 23.④ 24.③ 25.④ 26.① 27.② 28.①④ 29.⑤ 30.㉡과 같은 결말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허생의 주장이 당시에 수용되기 어려운 것임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다. 31.③ 32.② 33.④ 34.② 35. ㉠: 조선의 경제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 글을 아는 자들이 현실과 유리되었기 때문에 양민과 사회에 해를 끼쳐서 섬에서 내보내려 한 것이다. 36.④ 37.③ 38.⑤ 39.① 40.㉢: 인재를 추천할테니 삼고초려와 같이 임금이 직접 적극적으로 인재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 인재 등용의 불합리성 및 집권층의 무능 비판 41.③ 42.③ 43.③ 44.⑤ 45.② 46.⑤ 47.삼

고초려 48.② 49.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50.① 51.③ 52.④ 53.이튿날, 없었다

**9-(1) 옷 한 벌로 세상 보기**

1.③ 2.④ 3.② 4.② 5.⑤ 6.① 7.③ 8.④ 9.④ 10.③ 11.불필요한 옷 소비 줄이기, 옷의 정보 확인하기, 옷의 정보를 바탕으로 옷 소비하기 12.② 13.③ 14.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행에 따르기 위해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고 있다. 15.① 16.② 17.③ 18.② 19.⑤ 20.② 21.④ 22.① 23.① 24.② 25.② 26.① 27.① 28.⑤ 29.④ 30.② 31.㉠ 유행을 따르기 위해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린다. ㉡ 옷의 재료인 면화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살충제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고, 살충제가 지하수를 타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 물이 오염되어 동식물까지 병들게 한다. ㉢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과도한 노동을 강요당한다.

**9-(2) 교내 휴대 전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1.④ 2.② 3.⑤ 4.③ 5.④ 6.① 7.⑤ 8.⑤ 9.② 10.㉠ 휴대 전화를 교육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면이 있다. ㉡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주어진 문제를 검색을 통해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 휴대 전화가 주로 유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의 2015년 조사 자료를 제시한다. 11.④ 12.⑤ 13.⑤ 14.찬성 측 제1 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15.④ 16.중립적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절차를 안내한다. 17.①⑤ 18.③ 19.④ 20.⑤ 21.⑤ 22.⑤ 23.⑤ 24.③ 25.① 26.①

- 끝 -

## 5-(2) 조선의 얼, 광화문

1.③

▶광화문은 2006년에 복원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 완공되었다.

2.③

▶경복궁의 건축 양식과 관련된 언급은 없음.

3.④

▶광화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는 없음.

### ▶넣어둬, 패턴 공략◀

전문가(권위자)의 견해 인용→신뢰성 ↑

4.②

▶'광화문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돌아 몇몇 일본인 학자들도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으며'를 통해 알 수 있음.

5.⑤

▶㉔와 ㉕는 '자기의 의견, 주장 따위를 더 이상 내세우지 않고 거두어들이다.'임.

6.③

▶㉔ 대상(광화문)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 대상에 대한 상황 변화(수난과 복원 과정)를 통시적(시간의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인용의 종류 (★★)

ㄱ.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ㄴ.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엄마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고 했어.(직접 인용)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간접 인용)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 다음에, ~(라)고, ~다고, ~다는, ~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

8.②

▶신문사가 여론 조사를 한 것은 없음.

11.④

▶일제에 의해 경복궁의 동쪽 문으로 옮겨졌기에 ㉔의 반응은 적절함.

13.④

▶㉔ :끔찍하고 절망적임을 직접 나타냄.

14.④

▶(라) : 그의 편지 한 통은 우리의 민족혼, 민족 문화가 말살되는 데 대한 분노와 울분을 토해낸 것일 뿐이지, 광화문을 직접 움직인 건 아님.

15.⑤

▶의인화: 너, 반복법: 모르~, 영탄법: ~하는구나!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의인법 vs 활유법 (★★★)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이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 열거(나열) vs 반복 vs 대구 (★★)

ㄱ.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ㄴ.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ㄷ.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 영탄법:

감탄사 '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을 사용하거나, 호격조사 '아, 야, 이여, 이시여' 등과 감탄형 종결어미 '-아라 /-어라, -구나, -는가' 등을 사용하여 강하고 깊은 감정을 드러낸다.

16.⑤

▶광화문 철거에 대한 일본인 학자들의 지적은 있어도 일본 언론의 반응은 없음.

17.③

▶오백 년 동안 풍우를 같이 겪어서 조선 백성들이 더욱 슬픔과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것임.

18.⑤

▶광화문은 2010년에 제대로 복원이 마무리 됨.

19.③

▶1995년에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면서 경복궁을 일부나마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다.

21.④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잡고, 대신 광화문의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했기에 철거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5-(3) 전시회 공간을 빌려라

1.②

▶구 공무원은 전시회가 고등학생에게 힘을 주는 행사의 취지만으론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2.①

▶ㄴ. 전시회 참가비가 아닌, 학생들이 친구들의 웃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학교 사진 동아리 누리집에 올리면 한 장당 일정 금액이 모금되고 이를 통해 어린이 재단을 후원하는 것임. ㄹ. '학교 축제에서 준비할 것'은 협상이 아닌, 회의임.

3.⑤

▶요가 동아리 : 준언어적 표현(억양, 고조, 속도, 강약 등)의 사용은 없음.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준(반)언어 vs 비언어 (★)

- ㄱ.언어적 표현: 문자 혹은 음성 언어
- ㄴ.준(반)언어적 표현: 억양, 고저, 어조, 속도 등
- ㄷ.비언어적 표현: 손짓, 몸짓, 표정, 옷차림 등

4.②

▶㉠ 제 3자의 조정은 없음. ㉡ 상우와 공무원은 경쟁적 관계가 아님. ㉢ 많은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은 없음.

5.③

▶'구 공무원 : 학생 동아리라면 학교에서든 전시회를 열 수 있을 텐데 굳이 구청 강당을 전시회 장소로 써야 할 이유가 있느냐?'이 ③에 해당함.

6.⑤

▶구청의 구경에 관한 언급은 없음.

7.③

▶'구청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음.

8.②

▶상대측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사용하는 단계는 (다) 단계임.

10.⑤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할 기회이므로 (마) 단계에서 구청은 협상의 결과를 만족함.

11.⑤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해당 없음.

12.③

▶ㄹ. 우리측의 이익을 최대한 얻어야 함. ㄹ.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토론과 관련된 것임.

13.①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마련은 협상이 아닌, 회의와 관련된 주제임.

14.③

▶상대의 요구(전시회 날짜를 바꾸는 것)를 수용하며 자신의 요구 사항(전시회를 지역 주민에게 홍보)을 전달하고 있다.

### 6-(1) 두근두근 내 인생

1.④

▶시나리오라고해서 꼭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건 아님.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희곡 vs 시나리오 (★)

	희곡	시나리오
목적	연극 상연	영화 상영
장면 전환	제약 많음	자유로움
시.공간	제약 많음	제약 적음
인물 수	제한 적	무제한적
내용 단위	막과 장	장면(scene)

3.⑤

▶불량한 학생들의 언행이 작가의 생각과 동의하는 건 아님.

4.②

▶㉠ : 불량학생들이, 대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응, 헛갈리지 마!◀

#### 독백 vs 대화 vs 방백 (★★)

- ㄱ.독백: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혼자 말함.
- ㄴ.대화: 청자를 의식하고 상대와 말을 주고받음.  
(시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은 '대화체'로 봄)
- ㄷ.방백: 극문학에서 상대가 옆에 있어도 화자의 말을 못들은 것